2009 04.15 No.07(통권 108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특집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토요일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으로!
세계 태권도 메카로 거듭나는 전북 무주
우리 시대 뉴 파워의 나라사랑
"세상에 대한민국을 소리쳐"

이웃 구한 시민, 목숨 바친 군경·소방대원, 청백리…

애국자를 예우해야 선진국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지구상에는 약 2백20개 나라가 있다. 이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은 20개국에 불과하다. 왜 어느 나라는 나라발전에 성공해 선진국이 되고, 어느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나라발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나? 본래 나라사랑에는 세가지 길이 있다. 우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 즉 사회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첫 번째 길이다. 두 번째는 역사공동체인 자기 나라의 역사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즉 선조들의 땀과 눈물을 사랑하고 가르침과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무조건 비판하고 과거를 청산하려 드는 태도는 나라사랑이 아니다. 나라사랑의 세 번째 길은 나라의 자연공동체인 국토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과 생태계를 소중히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라발전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 신장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 즉 나라사랑에 있다. 이를 합쳐서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라고 부른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공동체자유주의를 잘 실천하는 나라가 발전해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지난 60여 년간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화를 위해 우리는 더욱 더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애국심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자유는 분명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나라사랑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자유는 신장되고 있는 반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되레 엷어지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 17대 국회의원
-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 정책위의장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애국자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애국자를 높이 예우하지 않고서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는 없다. 이웃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용감한 시민들, 세금을 많이 낸 기업가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 경찰관 소방대원들, 그리고 깨끗한 공직자(청백리)들을 존중하고 예우해야 한다. 국익과 공익에 기여한 분들에게 그 정도에 상응한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나라사랑의 마음이 크게 진작되고, 대한민국이 선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부민덕국(富民德國), 즉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민들이 사는 덕 있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모두가 함께 분발하자. G

CONTENTS

Weekly_2009.04.15_No.7(통권 108호)

기획특집

글로벌시대 대한민국 사랑

커버스토리 **BigBang**

알림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32

36

발행일 2009.4.1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주)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668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바로잡습니다 | 4월 8일자 〈Weekly 공감〉 No.6(통권 107호) 21쪽의 사진 설명 가운데 '2008년 그들과 세대가 다른 대학생들이' 부분의 '2008년'을 '2005년'으로 바로잡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의 탁월한 해결사"

태극기 보며 연아도 우리도 눈물 흘렸다

●● 〈Weekly 공감〉 6호(4월 8일자)에 실린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결산'을 읽고 한 독자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믿음직스럽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님이 낯설었는데 볼수록 좋아집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책 많이 펼쳐서 서민들 잘살게 해주세요.^^ _ 사르비아

●● 〈Weekly 공감〉 6호에 실린 '김연아의 성공 신화'를 읽은 독자들의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편을 소개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피겨를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일이 잘 풀려 '나는 피겨를 해야 하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땐가 들었는데 기사를 읽고 나니 그게 이 소리구나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지구인이네요.^^ _ 하늘걷기

●●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과 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소개합니다.

북은 미사일을 쏘는데 대한민국은 나무를 심는다.
얼마나 멋진 대칭인가. 전 세계를 향해 선전하면 어떨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의 푸르름을 위해 나무를 심는다!
오랜만에 흐뭇한 신문기사를 읽었다. 후련한 마음이랍니다. _ rock7047(권기수)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겠다.
좋은 말씀이다.
그 나무는 분명 평화의 나무다.
그런 마음이면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대화하자.
북한에도 나무 심기 하자고, 남북의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모여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도 논의하자고…
평화의 씨앗은 식목일에 하신 이 대통령의 말씀 속에 들어 있다.
오랜만에 귀가 즐거웠다. _ 주니아빠(이재균)

대통령님, 나무도 좋지만 미사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가 10년 동안 퍼준 돈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북한같이 어려운 나라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위를 보세요. 우리만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사일 개발하는 데 제발 투자해주세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일입니다.
경제도 좋지만, 군사력이 없으면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_ aktufk(서현)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글이 선정된 독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Weekly 공감〉 5호(4월 1일자)에 20년 동안 한결같이 보육원생들을 돌본 탤런트 정애리 씨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칠 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조금이나마 힘이 됩니다.^^_ 국화차

●● 〈Weekly 공감〉 5호에 실린 비보이팀 '갬블러'의 리더 장경호 씨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자가 격려성 댓글을 올렸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용감한 청년들이 큰 일을 벌였군요.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내기에도 힘들었을 그들, 묵묵히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_ 유병녀TOP

〈Weekly 공감〉 5호(4월 1일자)의 'Korea.kr 정책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였으며, 퀴즈 내용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 휴먼뉴딜

당첨자

문화상품권(3만원) 받으실 분(5명)

맹수원(서울 마포구 성산동)
박수진(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이종윤(전남 순천시 생목동)
전미선(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김용두(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USB(8GB) 받으실 분(10명)

양태인(인천 남동구 구월3동)
강병우(대구 북구 대현동)
이송애(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이성호(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박준석(대구 달서구 월성동)
김강수(부산 사하구 다대2동)
양희경(광주 북구 운암1동)
김천곤(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황복희(대전 동구 성남동)
박예순(충남 보령시 대천동)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 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4월 2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로

4. 〈Weekly 공감〉의 이번 호 기획특집 주제. 애국.

6. 이미 오래 전에.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 "엊그제 봄이 온 것 같더니 OO 여름이네." "내 나이 OO 마흔이다."

7. 사랑하는 정. "OO어린 눈빛"

8.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고, 건국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G20 의장국으로 우뚝 올라서고, 2002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나라. 반도체, 조선, IT분야의 강국이며, 독도의 주인인 나라.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할 저력이 있으며, 피겨스케이트 세계챔피언 김연아 선수가 있어서 행복한 나라.

9. 지은이와 연대를 알 수 없는 고려가요로 추정되는 서정시. 이별의 애틋함을 간결하고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OOO OOO잇고 나는,부리고 OOO 잇고…"

세로

1. 경제와 문화, 역사와 사회 전반의 것들이 광범위하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대. 지구적인, 세계적인, 전체적인 시기. 이러한 때일수록 더 성숙한 나라사랑이 필요합니다.

2. 손위 누이. 언제 불러도 정겹습니다.

3. 신라 때의 청소년 단체. 심신을 단련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김유신과 관창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5. 조선 전기의 학자 서거정(1420~1488)의 호. 이름과 비슷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7.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풍류로 빚고 맛으로 즐기는 한식 세계인의 밥상에 올리자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

반만년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한식. 음식에서 건강을 찾고 풍류와 멋을 즐기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한식은 음식에서 건강과 문화를 찾는 세계 음식 트렌드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세계 5대 음식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화를 선포한 한식, 이제 한식은 한국인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건강 밥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서 선보인 우리 음식들. 왼쪽부터 보쌈, 궁중떡볶이, 증편, 비빔밥.

현대적인 '웰빙 음식' 한식(韓食)을 이탈리아의 피자나 일본의 스시처럼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나라 안팎 인사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 조리코스를 개설하고, 스타 한식조리사를 양성하는 등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도 발표됐다.

4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아이디어와 전략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한식 세계화 선포식 이후 나온 첫 결실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등 3백여 명의 국내외 음식 전문가와 주한 외교사절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세계적 요리학교인 르 코르동 블뢰의 샤를 쿠앵트로 아시아지역 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와 프랑스 요리의 경쟁력으로 '탁월함, 혁신, 전통'을 꼽으며 "프랑스는 원산지품질등급표시제(AOC)를 통해 식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요리는 지금도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태권 광주요 대표는 "한식은 과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문화가 아닌 생계수단으로 인식돼온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공모전 등을 통해 세계화가 가능한 한식당 모델을 만들고 자본과 조직을 가진 대기업이 선도해 한식을 고급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진출 길 찾아야

국내외 음식 세계화 성공 사례가 발표된 2세션에서는 놀부 NGB 김순진 회장이 "한식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조사가 중요하다"며 "우리 회사는 해외 진출 전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2년간 시장 상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국내외에서 '놀부항아리갈비' '수라온' 등 6백40여 개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또 "현지인 기호에 맞는 소스와 메뉴 개발, 한식브랜드 고급화에 힘썼다"며 "한식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리사 파견과 브랜드 관리, 오피니언 리더 대상 홍보, 글로벌 브랜드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음식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의 집중 마케팅 등이 해외 진출의 성공 요인"이라고 소개했다.

일식 세계화의 비결을 소개한 가토 가즈타카 일본푸드서비스협회(JRO) 전무이사는 "2년 전 일본 밖의 일식당 숫자가 2만5천 개였으나 최근 4만 개로 늘었다"고 전하면서 "일식 세계화에는 정부와 민간기구의 공동사업, 특히 2007년 설립된 JRO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JRO는 해외 주요국가에 현지 조직을 설립해 일식당 간 정보 교환, 일본 식재료의 수출 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가토 전무는 "한식 역시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제휴로 해외 진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태국의 음식세계화인 '타이 키친 투 더 월드(Thai Kitchen to the World)' 캠페인 당시 주방장들의 해외 진출 교육을 담당한 수라차이 찌우 짜른 싸쿤 태국 카세사르대학 교수는 "태국음식의 성공 뒤에는 조리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정부 정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는 태국음식의 세계화는 태국 식자재 수출에 기여했다. 음식 세계화는 음식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내놓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기반 닦을 것"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이탈리아 요리학교 알마(ALMA)의 안드레아 시니갈리아 교수는 "과거 이민자들을 통해 해외에 전파됐던 이탈리아 요리가 최근에는 국제요리학교에서 양성된 인력을 통해 세계화하고 있다"며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두바이 버즈알아랍호텔의 에드워드 권 수석 총괄조리장은 "한국 음식은 전통에 기초를 두되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한식 장르와 한식당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천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정부 내 통합적인 한식 세계화 추진 전담 조직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정기 경기대 외식조리학과 교수는 한식 밥상 구성체계의 전환과 단품메뉴 개발을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방문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단장이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의 세부 전략으로 마련된 이 추진 전략은 국내 4개 과제, 해외 5개 과제 등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국내 부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외식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2013년까지 5백억원 규모의 '식품산업 투자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에서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아름다운 한식 그릇들.
왼쪽부터 도기, 목기, 유기 반상기.
맨 오른쪽은 쌀과 콩으로 만든 한과, 청국장초콜릿 등
한식 간식을 시식하는 심포지엄 참석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식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뢰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 한식 강좌 개설, 국가 공인 '국제 한식요리 자격증' 도입 등 한식요리 명장 프로젝트 △특1급 호텔에 한식당을 늘리는 등의 스타 한식당 프로젝트 △입소문으로 한식을 알리는 세계 1백만인 구전(口傳) 네트워크 구축 같은 한식 마니아 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음식으로 대한민국 이미지 높인다

해외 부문에서는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등 한식세계화 연구·개발 △한식당 고급화 등 한식 이미지 높이기 △메뉴와 조리법의 표준화 등 알기 쉬운 한식 만들기 △재외동포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한식문화 알리기 △2017년까지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 1백개 키우기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에 '한식 세계화 추진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식 세계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부인 김윤옥 여사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잡지 〈헬스〉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음식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한식을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한식이 부쩍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아직 외국인들이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 외국의 일부 한식당에서는 한식 대신 국적불명의 메뉴가 제공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뒤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식이 되려면 안전하고 다양한 식재료가 중요하며 표준화와 현지화 노력, 맛과 향을 살리는 조리법, 전문인력 양성, 인테리어 향상 등을 통해 한식당이 한국문화 체험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아태식재료종합무역상사 이영규 대표

"한식재료 '반가공 수출'로 승부수"

"한식 세계화의 본질은 우리 식재료의 세계화입니다. 한식의 맛은 우리 식재료를 사용해야지, 현지 농산물로는 진정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식재료 수출 전문기업인 (주)아태식재료종합무역상사(이하 아태식재료)의 이영규(48·사진) 대표는 "앞으로 한식 세계화에는 식재료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태식재료는 지난 2월 19일 식재료 관련 9개 기업과 협회 등이 공동 설립한 국내 첫 식재료 전문 수출기업. 이 회사는 출범하자마자 싱가포르에 비빔밥 재료, 불고기 양념 등 2만5천 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일반 판매용 농식품 수출은 있었어도 식당에 공급되는 식재료 수출은 거의 없었다"며 "정부의 제안을 받아 까다로운 통관 문제 때문에 홀로 수출에 나서기 어려운 식재료 관련 중소기업들을 취합해 회사를 만들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백억 달러 달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중 식재료 수출 목표가 35억 달러다.

4월 7일 한식세계화 국제 심포지엄을 참관한 이 대표는 "향후 목표는 외국의 대형 식재료 상을 통한 판로 확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떡볶이, 비빔밥 등 한식재료를 반가공 상태로 수출하면 외국 현지 레스토랑이나 푸드코트에서 금방 조리해낼 수 있어 한식당 안팎에서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수출 상담을 하다 보니 남미와 중동 바이어들도 저염도, 저열량으로 소문난 한식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다"며 "에어프랑스나 루프트한자의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제공되지만 재료는 중국산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식재료 비중을 높여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G

남성 5인조 그룹 '빅뱅'은 현재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핫(hot)한 아이콘이다. 그들이 무명시절부터 스타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책 〈세상에 너를 소리쳐〉는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역경을 딛고 세상에 소리쳐서 자신을 알린 빅뱅 멤버들의 치열한 도전기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의지와 희망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五人五色' 저마다 소설 같은 인생

땀과 눈물로 일군 성공스토리

BigBang

사람들이 연예인에 대해 흔히 갖는 선입견이 몇 가지 있다. 학식은 부족하지만 얼굴이 조금 잘난 덕에 연예인이 됐고, 힘 있는 기획사를 만나 금방 스타가 되며, 높은 지명도로 쉽게 돈을 벌고, 그 덕분에 사회적 지위도 얻는다는 것 등이다. 특히 그 연예인이 아이돌 그룹이라면 이런 선입견은 더욱 강해진다.

빅뱅(BigBang) 역시 아이돌 그룹이다. 이들의 경제적 파급력은 메가톤급이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빅뱅이 유발한 매출은 4백억원에 달한다.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보다 많아 그야말로 움직이는 기업이다. 하지만 10대 팬들의 뜨거운 열광 속에 아무런 걱정 없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스물 안팎의 젊은이들이 큰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면, 빅뱅과 비슷한 또래 청년들은 괴리감과 상실감을 느낄 법하다.

그러나 빅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투를 느낄 '스타'라기보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친구'들이다. 이들은 외형만 봐도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야 멋있게 보이지만, 2006년 데뷔 당시에는 전혀 아이돌 그룹 같지 않은 수더분한 외모에 수줍음까지 많았다. 흔히 아이돌 그룹이라면 1백80센티미터 정도의 큰 키에 순정만화 주인공 같은 꽃미남을 연상하기 쉽지만, 빅뱅 멤버들은 너무도 '평범하게' 생겼다. 키도 래퍼인 탑(T.O.P)을 제외하면 1백70센티미터 안팎이다. 빅뱅은 이렇게 기존 아이돌 그룹의 기본 공식을 깨뜨렸지만, 연매출 4백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성공한 아이돌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

빅뱅의 성공요인으로는 친근함이 첫손에 꼽힌다. 빅뱅은 30대 이상 기성세대들도 열광하는 '국민 아이돌'이다. 2006년 초여름, 빅뱅의 데뷔를 앞두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룹을 만들겠다"고 말했던 빅뱅 기획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의 말이 들어맞은 것이다. 이전까지 아이돌 그룹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에게만 환호를 받는 '딴 세상 그룹' '그들만의 그룹'이었지만, 빅뱅은 친근한 외모에 부모세대들도 좋아하는 노래로 어필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빅뱅의 다섯 멤버는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친구들이다. 도심을 배회하다 캐스팅된 멤버는 아무도 없고, 직접 기획사 문을 두드리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거쳐 멤버가 됐다. 어린 나이부터 꿈이 있었고 목적의식도 뚜렷했으며, 어느 멤버 하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뒤지지 않았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학업과 연습생 생활을 병행하며 여느 학생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멤버 스스로가 곡을 만들고 창의적인 춤과 랩을 한다는 것도 기존 아이돌 그룹과 가장 큰 차별화를 보였던 '프리미엄'이다. 빅뱅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갖는 선입견을 거꾸로 뒤집어놓았다.

빅뱅의 다섯 멤버는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친구들이다.
직접 기획사 문을 두드리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거쳐 멤버가 됐다.

지드래곤 · 태양 *6년간의 연습생 생활, 열정과 집념으로 인내*

빅뱅의 노래를 만드는 지드래곤이나 태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무려 6년의 연습생 기간을 견뎌냈다. 고독한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 지망생들도 많지만, 두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어린 나이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외로움을 견뎠다.

지드래곤은 초등학교 6학년 열세 살에 '꼬마 룰라'로 이미 데뷔했지만, 연습생 신분에 실망하지 않았다. 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악으로 6년을 견뎌냈다. 빅뱅 멤버가 돼서도 그는 노래를 만들고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태양도 어려서부터 뚜렷한 목표와 도전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을 더 일찍 불사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 오디션을 통해 지누션의 뮤직비디오에 발탁됐던 태양은 그 어린 나이에도 마치 자신의 솔로무대를 준비하듯 오디션을 준비했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션의 아역을 멋지게 소화해냈다. 칭찬 몇 마디에 양현석에게 "가수 시켜달라"고 당돌하게 말했고, "조만간 연락하겠다"는 양현석의 말에 한 달을 기다리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왜 연락을 주지 않느냐"고 따져 결국 연습생이 됐다. 태양은 당시를 회상하며 "열정과 집념만 가진다면,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지드래곤과 태양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인생 목표를 정했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다. 친구들이 학교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을 때 이들은 랩과 안무를 익혔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릴 때 이들은 습기 가득한 지하 연습실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더위와 싸우며 춤을 배웠다. 친구들이 시험을 마치고 기분 좋은 환호를 외칠 때 이들은 또 다른 시험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연습실로 향했고, 친구들이 방학이라고 늦잠을 자는 순간에도 방학이기에 더 일찍 나오고 더 오래 연습해야 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또래 친구들이 엄마의 "밥 먹으라"는 말조차 잔소리라고 지겨워할 때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보는 엄마가 걱정할까 애써 밝은 웃음을 지어 보여야 했고,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남들과 출발선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달랐기에, 여기서 물러서면 돌아갈 곳조차 없는 우리였기에 그렇게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지드래곤과 태양은 그렇게 기나긴 연습생 기간을 인내했고, 또 '할 수 있다'는 집념, '꼭 이뤄내겠다'는 도전의식으로 빅뱅이 됐다.

승리 *15세부터 도전과 실패를 통해 배운 인생*

승리의 이야기는 가장 드라마틱하다. 춤을 못 추는 '몸치'였고, '가능성 1퍼센트'의 일도 그 1퍼센트를 파고들어 성공을 이뤄냈다.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도전은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열다섯 살 때부터 가졌고, 빅뱅 멤버로는 두 번째 솔로활동을 벌이는 기회도 얻었다.

이제 겨우 만 18세를 갓 넘긴 나이지만 광주지역 댄스팀에서부터 올해 초 솔로 활동을 하기까지 승리의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로 설명된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벼락같이 기회가 왔다가 허무하게 좌절을 맛본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해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다섯 살 때부터 목표가 생기면 도전했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 이뤄냈다.

광주가 고향인 승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지역 댄스팀의 공연을 보고 춤에 매료됐다. 몸치였지만 댄스팀에 들어가 춤을 췄다. 하지만 댄스경연대회를 앞두고 팀이 해체됐고 팀 선배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선배들을 설득했다. '몸치' 주제에 그는 "내가 안무를 구성해보겠다"고 호언했고, 며칠을 궁리한 끝에 춤을 완성했다. 어렵게 출전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후 중학생 신분에 한 달 수입이 1백20

만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에선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2005년 6월 '제2의 신화' 멤버를 선발하는 엠넷(Mnet)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배틀 신화' 오디션 제안을 받았다. 승리는 꿈에 그리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최종 결선에서 탈락했다. 크게 상심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보아와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가수 이승환이 설립한 드림팩토리 등 여러 기획사를 돌며 오디션을 봤다. 번번이 탈락했다. 거듭된 실패에 중3 어린 가슴은 찢어졌다.

그러나 승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운 좋게도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단 한 번에 오디션을 통과됐다. 1년 반가량 연습생 생활을 하다 빅뱅의 후보 멤버가 돼 데뷔기를 담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하지만 승리는 다른 멤버들과의 실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빅뱅에서 최종 탈락하고 말았다. 승리는 자신의 실력을 냉정히 돌아보고 모자란 실력을 인정했다.(장난기 많은 그는 데뷔과정을 돌아보면서는 사뭇 진지했다.)

"다른 멤버들은 6년씩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전 연습량이 너무 부족했죠. 실력 차이가 너무 났어요. 춤, 노래…. 너무 모자랐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양현석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양현석은 "기회는 주지만 다시 발탁될 가능성은 눈곱만큼밖에 안 돼"라고 말했다. 승리는 '눈곱만큼이지만'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가치를 뒀다. 독기를 품었다. 힘들 때면 "승리야, 난 네가 참 좋다. 힘내"라는 말로 스스로 격려하면서 연습을 했다. 실력은 모자랐으나 그런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승리는 빅뱅에 발탁됐다. 빅뱅은 승리 없이 4인조로 탄생할 뻔했지만, 승리의 끈질김에 5인조가 됐다. 승리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솔로활동을 했다. 그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는 소녀시대의 신곡 'Gee'와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였고, '스트롱 베이비'가 수록된 빅뱅의 미니앨범은 판매량이 하향곡선을 그리다 갑자기 하루 주문량 3천5백장을 기록할 만큼 판매량에 다시 불이 붙기도 했다.

대성 긍정의 힘으로 얻은 기회

'미소천사' 대성은 '긍정의 힘'으로 대성(大成)한 경우다. 엄격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가출소동까지 벌이는 등 어렵게 YG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됐지만, 그는 "아버지의 반대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다면, 어쩌면 금방 음악에 흥미를 잃고 대강대강 하다 끝났을 확률도 높아요. 오히려 차갑고 냉정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성은 중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에게서 들은 "가수 해도 되겠네"라는 말 한 마디에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고교생이 돼서야 가수 준비를 시작한 탓에, 오디션을 보기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의 환한 미소는 양현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성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습관처럼 "긍정 하면 강대성인데, 이런 일로 기죽으면 안 되지"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 에너지의 법칙'을 그는 지금도 믿고 있다.

"내게 '긍정'이라는 습관이 없었다면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그냥 꿈으로만 묻어뒀을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동안의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긍정이라는 페달을 힘껏 밟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웃어요. 소망을 놓는 순간 절망이 남지만, 희망을 품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의 노크를 하고 있어요."

탑 시련이 성공을 만든다

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랩에 심취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평범한 학생이 아닌 이른바 '탈선 학생'으로 생활했다. 어려서부터 큰 키에 유난히 튀는 힙합패션으로 선배들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두 명의 친구를 잇따라 오토바이 사고로 잃은 후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다.

래퍼가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고교 때부터 언더 무대에서 공연하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던 그는 YG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애초 음유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컸던 탑은 춤을 배워야만 빅뱅 후보 멤버 선발을 위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춤이 싫어 오디션을 포기하려 했지만 춤을 넘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춤을 췄다.

"만일 내가 오디션을 포기했더라면, 아마 지금 같은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힙합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양한 문화와 음악에 귀를 닫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력 있는 래퍼라면 힙합뿐 아니라 가요, 발라드, 보사노바, 댄스까지 모든 장르에서 랩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은 시련이 성공을 만든다는 가치관이 뚜렷하다. 그리고 생각이 많고, 오랜 생각 끝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그것을 향해 과감히 뛰어들었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밤새 공부할 때 그는 음악을 위해 과감히 학업을 포기했고, 남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젊음을 만끽할 때 그는 연습실에서 고된 훈련을 즐겼다. 그가 바라던 세상이 전부였기에, 그는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산다는 자각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

"기회는 그냥 흘려보내면 실패가 되지만, 움켜쥐면 행운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연습생"

인생이 짧은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이듯, 빅뱅 멤버들에게 좌절은 큰 기회가 됐고, 아픔은 인내와 성숙함을 기르게 했다. 승리는 "내가 고통을 느끼고 힘이 들어야 사람들이 기분 좋게 보실 무대가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한다. "내 수고의 결과를 좋아해주시는 걸 알았으니, 전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고 힘들어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과 수고를 즐길 겁니다."

승리는 솔로활동을 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한다. 혼자 활동하다 보니 언론 인터뷰나 라디오 방송 출연 기회가 많아져 말 주변도 늘려야겠고, 특히 올해엔 대학입시도 준비해야 돼 교양서적은 물론 영어와 일본어 책도 보면서 자기발전 시간을 갖고 있다.

지드래곤도 "실패와 좌절이 두려워 도전하지 못한다면 젊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매일을 살고 있다. 이렇게 초심과 겸손함, 부단한 노력이 있기에 이들에겐 롱런이 보장돼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필요에 의해 밴도 타게 되고, 매니저 형 누나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남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뿐이에요. 겸손과 노력이라는 우리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등이라는 타이틀이나 음반 판매량 기록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쏟아낸 것'에 내려지는 하나의 보너스라는 것도. 우리는 평생 연습생의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지드래곤) G

글 · 김원겸 스포츠동아 기자

기획특집

힘내라 대한민국!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대형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친다. 사이버상에선 민간외교관이 되어 독도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 '개인주의'와 '글로벌'에 더 익숙한 젊은 세대지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나라사랑 열정은 독립군과 애국선열 못지않다.
글로벌시대의 나라사랑은 외골수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품어 안는 여유와 자랑스러움의 원천이다.
자신 있게 세계를 향해 외치자. "나는 자랑스런 대한국민이다"라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첫 번째 세대라 할 수 있다. 잠실야구장에 모여 WBC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국민들.

"나라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기성세대의 애국심이 비장·엄숙하다면,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은 친근·발랄하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독립군들 못지않다. 이들의 나라사랑 열정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에너지로 승화될 것이다.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 김인식 감독의 "나라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는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WBC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투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국민들도 절대적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선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일궜다"고 격찬했을 정도다.

2009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의 모습도 화제였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활짝 웃는 광경도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스포츠계에서 나라를 위해 투혼을 불사르는 모습은 과거에도 흔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태극기를 손에 들고 경기장을 도는 것은 정형화한 의식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한국 야구대표 선수들과 김연아 선수는 이전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다르다. 이들은 '몸이 곧 돈'인 프로선수이고, 개성 강하고 자유분방한 1990년대생이다. 국가보다는 '개인'과 '글로벌'이 더 익숙한 세대다. 그런데도 이들의 나라사랑은 일제치하 독립군의 애국열정 못지않다.

동아DB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이 뜨겁다.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은 대형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과 길거리를 누비는가 하면,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태극 문양으로 몸을 페인팅한다. 태극기가 응원도구나 장식품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치고,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에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

사실 이런 모습이 기성세대에게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기성세대에게 태극기는 구국의 결의를 다지는 비장함,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신성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르다. 식민역사, 전쟁, 독재 등 구속과 억압을 겪지 않은 세대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전 세대에게 애증의 대상이던 태극기가 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일 뿐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나라사랑의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보수단체의 집회에 태극기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조차도 태극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정치와는 무관한 스포츠 행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현상을 '헌정 애국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2000년대 들어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정치공동체와 자신을 긍정적으로 동일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 사회적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반공주의적인 국가정체성이나 저항적 민족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이 부상하고 있다. 바로 헌정 애국주의다."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 헌정 애국주의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은 인터넷상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의병들의 활약이다. 세계국학청년단(회원 1만명)은 아예 사이버 의병을 자임하며 나라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 다음의 독도사랑동호회도 독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고구려 지킴이'를 자처한 인터넷 카페들도 여럿 생겨났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동북공정의 허구성을 전파할 뿐 아니라, 3·1절 태극기 몹 행사(태극기 문양이 박인 옷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 독립만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한다. '한류열풍 사랑' 카페는 그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는 사이버 의병들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애국주의는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세계화는 분명 경제적 민족주의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문화적 민족주의는 영역과 이슈에 따라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세계화만큼이나 지역화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지역은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이심전심으로 이어지는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

패션컨설턴트 김소희 씨는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나라사랑 열기에 대해 "'모두 함께(all together)'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에서 기인한다"는 색다른 진단을 내렸다. 외환위기 이후의 금 모으기 열풍,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자들의 행렬 등은 '모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집안은 물론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해결해온 우리에게 '모두 다함께'라는 인식은 매우 강하고도 익숙하다.

"경기장 또는 거리에서의 대규모 응원도 마찬가지다. 일일이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손뼉을 쳐도 금세 박자가 맞는다. 다음에 나올 구호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모두 다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통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젊은 세대의 나라사랑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심전심으로 발랄하게 표현되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태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 행렬은 '모두 함께(all together)'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사례다.

타임스퀘어 광장에 독도 영상… 태극 디자인으로 국위 선양

“외국인들이 의외로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회 곳곳에는 헌신적인 나라사랑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숨은 애국자와 단체들이다. 이들의 빛나는 활약상을 소개한다.

|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

“대한민국 1등 독도지킴이”

지난해 7월 9일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동해와 독도를 알리는 전면광고가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라는 헤드라인을 단 이 광고에는 “지난 2천 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동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동해에 자리한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8월 25일 〈워싱턴포스트〉지에는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광고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과 함께 실렸다.

이 일을 벌인 사람은 뜻밖에도 정부당국이나 관계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고’를 친 평범한 국민이었다. 주인공은 바로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35) 씨다.

“대학 시절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한국 홍보에 나섰죠.”

서 씨가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온 지도 어느덧 15년째다. 그는 해외 유수 언론에 독도, 동해, 위안부, 고구려 관련 광고를 실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와 함께 ‘한글 세계 전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유명 박물관에 영문으로 된 한국 안내책자를 비치함과 동시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유명 대학의 한국학 연구실에 자료 보내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의 8·15 광복절 행사, 다이내믹 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도 그가 기획했다. 지난해 말 독도 주연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미안하다, 독도야’의 기획 프로듀서를 맡기도 한 그는 영화를 DVD로 제작해 재외동포 2, 3세들이 다니는 전 세계 한인학교에 배포했다.

“누리꾼(네티즌)과 독지가들이 전방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단결된 모습이 한국 홍보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간지 광고 게재 때도 가수 김장훈 씨와 10만여 명의 누리꾼이 동참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8월 독립기념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서 씨는 김구 선생의 어록이 새겨진 ‘나의 소원’ 한글 작품과 독도 앞바다에 설치됐던 대형 태극기를 독립기념관에 기증, 전시되도록 힘쓰는 등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 씨는 독립기념관과 함께 ‘범국민 역사자료 기증운동’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계기로 추진하는 이 캠페인은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자료를 기증받아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립운동사의 연구기반을

정경택 기자

서경덕 씨는 해외 유수 언론에 광고를 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있다.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립운동가, 국회의원, 역사학자,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돌며 거리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해외 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려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난극복사, 독립운동사, 영토에 관한 것이면 어떤 자료든 접수가 가능하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www.i815.or.kr)에서도 기증의 향서를 접수받고 있다.

"역사자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금 함양하고, 나아가 후손들로 하여금 역사자료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계승케 하기 위해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독도 수호를 위해서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기증된 자료는 9, 10월께 특별기획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 씨는 지난해 누리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5월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중 한 매체에 또 한 번 독도 광고를 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12월에는 기업 후원금을 모아 뉴욕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독도 홍보 영상물을 상영할 계획이다.

|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

"비즈니스룩과 태극 문양의 만남"

산업디자인계의 미다스로 통하는 김영세(59) 씨는 태극기 라인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상품으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 김 씨는 세계적인 필기구 디자인 컬렉션 애크미(ACME)가 2004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컬렉션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디자이너다.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인 태극을 디자인 패턴으로 응용한 애크미 태극컬렉션 시리즈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백미다.

김 씨는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태극과 사괘가 직선의 강직함과 곡선의 부드러움으로 한국인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면과 색이 아닌 태극의 선만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첫 번째 애크미 태극컬렉션은 태극의 둥근 곡선을 담아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고, 2007년 출시된 태극컬렉션II는 사괘를 이용해 한층 남성적인 이미지로 사용자의 스마트한 비즈니스룩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품은 커프링크스, 명함지갑, 펜, 키홀더 등 4종이 출시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극 문양의 MP3플레이어를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코리아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며 "융합시대에는 디지털과 디자인이 결합하면 꿈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

동아DB

김영세 씨는 태극과 사괘의 라인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상품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을 결합한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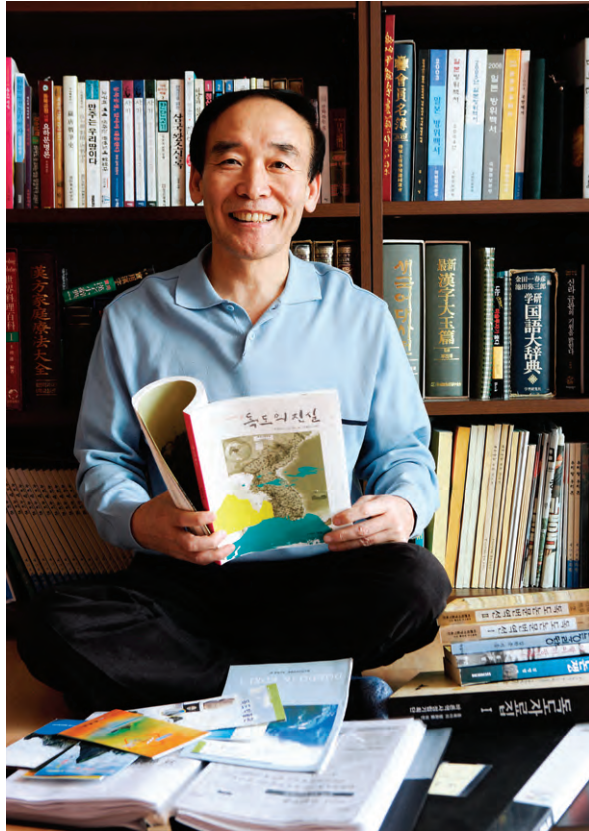
김 씨는 서울시가 운행할 최신형 한강 유람선의 외관을 태극 문양으로 디자인하는 등 자신의 영역을 산업 부문에서 생활문화 부문으로 넓혀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길은 디자인이며, 디자인 강국이 경제 선진국임을 강조해온 김 씨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태극 문양의 곡선과 직선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데,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모던함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예비역 육군대령 진석근 |

"사비 털어 만화 '독도의 진실' 출간"

지난해 10월 예편한 예비역 육군 대령 진석근(55) 씨는 자비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청소년용 만화책을 발간했다. 진 씨가 그동안 육군 독도 전문가로서 써온 글을 요약해 만화로 풀어낸 〈독도의 진실〉에는 독도의 위치와 역사,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법적, 역사적, 실제적 자료 등이 담겨 있다. 이 만화책은 진 씨가 1996~1997년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쓴 졸업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 씨는 독도에 관한 한국의 견해를 솔직히 알리고 양국 안보 관련자들이 독도를 양심적으로 이해하자는 뜻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 주장의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한국과 일본의 사료(史料)를 통해 입증하자, 당시 자위대 간부학교 심사위원들은 이 논문의 통과 여부를 두고 찬반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진 씨는 "일부 일본 장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자꾸

독도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과 역사를 만화로 풀어낸 예비역 대령 진석근 씨.

정경택 기자

정소진 하사(왼쪽)와 그의 임관식에 참석한 아버지 정기영 대령.

그러느냐'고 항변하는 것을 보고 논문 주제를 정했다"며 "자위대 간부학교는 이 논문을 승인하는 대신 표지에 '개인 의견'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도기념관은 일본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자위대가 진 씨의 논문을 이수한 사실을 '독도가 한국 땅' 임을 알린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2006년 진 씨에게 논문을 기증받아 영구 전시하고 있다.

독도뿐 아니라 우리 역사 전반에 관심이 많은 진 씨는 〈잃어버린 우리 상고사〉 〈우리 땅 우리 혼〉 등의 책도 펴냈다. 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고 현역에서 물러난 그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지식과 역사를 좀 더 쉽게 알려주고 싶어 만화책을 펴냈다"며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효과를 높이려면 해병대로 하여금 독도를 지키게 하고, 세계 각국 출판업계와 민간 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독도가 우리 땅임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3기 공군 부사관 정소진 하사 |

"3대째 한길… 조국의 항공을 수호한다"

제203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지난 3월 31일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한 2백91명의 신임 부사관(여군 54명 포함) 중에는 3대째 공군의 길을 이어가는 정소진(20·항공관제) 하사도 있었다. 정 하사의 할아버지는 1955년 공사 3기로 임관해 1978년 퇴임 때까지 23년 동안 베테랑 조종사로 이름을 날린 고(故) 정진섭 예비역 대령이다. 아버지인 정기영 대령은 현재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기영 대령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의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 정 하사의 형인 정소원 중위는 지난해 공군사관학교를 56기로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 약학과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정 하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공군관사에서 생활하며 공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헌신하며 조국 수호에 앞장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길을 꿈꿨다. 대학 진학 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주저없이 공군을 선택한 정 하사는 "훈련이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훈련에 임했다. 훈련과정 중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마다 공군 선배인 아버지의 조언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 하사는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늘 자랑스러웠다"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느꼈던 당당하고 멋진 공군 간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독도 품은 이종상 화백 |

"화가들 뜻모아 60인 문화의병 조직"

'품에 꼭 안고 싶다. 보라색 안개로 띠를 두르고 금세 용광로에서 흘러내린 듯한 기암, 독도. 너무 급한 마음에 타고 가던 거룻배에서 훌쩍 물속으로 뛰어들어 첫발을 내디뎠다.… 독도의 산천이 이리도 아름다웠던가. 동도(東島)가 수줍어 엎드렸는데 서도(西島)가 고개 들고 망을 보는 자세다.'

1977년 3월 7일 새벽 5시, 화가로서는 최초로 독도 땅을 밟은 일랑(一浪) 이종상(71) 화백은 답사기에 이렇게 적었다. 검푸른 새벽 물안개가 연보랏빛으로 바뀌는 해돋이의 장관과 물안개가 걷히면서 선명하게 드러난 독도의 실루엣은 당시 우리 시대 진경(眞景)을 그리고 싶어 전국의 섬을 주유하던 이 화백이 그토록 찾아 헤맨 그것이었다. 초행에 해돋이도 보고 섬에도 오른 이 운 좋은 화가는 그날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독도의 해를 가슴에 품고 돌아왔다.

"그때는 그게 행운인지도, 제 삶을 바꿔놓을지도 몰랐어요. 그저 독도만 생각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후 이 화백은 신들린 사람처럼 화선지 위에 독도를 그려댔지만 벅찬 가슴이 후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가슴만 터질 뿐, 독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길이 없었다. 어이하랴, 발

황선기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은 태극기가 훼손되거나 잘못 게양되는 일이 없도록 '태극기 바로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상 화백은 지극한 독도사랑을 독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왼쪽).

아래 흙이라도 발라봐야지. 그는 캔버스에 독도의 흙을 바른 뒤에야 비로소 재현되는 영기(靈氣)를 느꼈다고 한다. 이후 그가 그린 독도 그림은 무려 5백여 점에 이른다.

"독도는 볼 때마다 달라요. 천의 얼굴을 하고 있지요. 지난해 봤을 때 다르고, 계절마다 달라요. 자연을 빌려 축소해놓은 잘생긴 수반석(水盤石) 같다고나 할까. 자연의 오묘함과 신(神)의 조형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창작물입니다."

이 화백은 첫 독도 입도 이후 기회가 날 때마다 화가, 시인들과 함께 독도행을 주선해 독도를 소재로 한 시와 그림들을 남기도록 독려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2005년엔 화가 60명으로 구성된 독도지키기 '문화의병'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 화백은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만큼 독도도 우리를 지켜준다. 한반도가 내 몸이라 생각하면 독도는 좌청룡이고, 강화도 참성단은 우백호, 백두산은 북의 현무, 한라산은 남의 주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알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신념으로, 정신으로 품고 있는지가 문제다. 진정 내 것이라면 사랑하고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에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얼마나 그 섬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화가들은 무장하고 보초를 서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생태환경운동을 벌이는 대신 독도를 그리고 또 그릴 겁니다."

| 황선기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회장 |

"훼손된 태극기 그냥 못 지나쳐"

37년 동안 한결같이 태극기 사랑을 실천해온 (사)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 황선기(59) 회장은 태극기를 늘 지니고 다닌다. 훼손된 태극기가 게양돼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서다. 그의 지극한 태극기 사랑은 1972년부터 시작됐다. 위아래가 뒤바뀐 채 걸려 있거나 야간에까지 게양된 태극기를 보며 '태극기 바로 달기'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

황 회장은 당시 자신이 다니던 목재회사에서부터 태극기 바로 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회사에 걸려 있는 더러운 태극기와 부서진 깃봉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털어 마련한 새 태극기와 황금색 깃봉을 회사에 기증했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잘못 게양된 태극기까지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의 유별난 태극기 사랑을 오해한 공무원들의 신고로 경찰서에까지 불려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금세 풀려난 황 회장은 그 일을 계기로 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태극기 관련 강의도 했다. 태극기를 향한 그의 열정이 계속됐음은 물론이다. 그는 1982년 태극기 사용 1백 주년을 맞아 인천에서 개최된 국내 최초의 태극기 선양 전시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태극기 나눠주기, 태극기 관련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태극기 바로 달기에 힘쓰고 있다.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를 통해 그동안 수만 기의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준 황 회장은 "태극기게양에 소홀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대형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주택에는 국기꽂이가 없는 곳이 많아 태극기를 달기가 힘들다"며 "건물을 지을 때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기 게양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증조할아버지에게서 1890년대 제작된 태극기를 물려받은 황 회장은 규격과 크기가 다른 30여 종의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다. 그는 "태극기는 옛날 조상들과 오늘을 사는 후손들을 이어주는 정신적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며 "이렇게 고귀한 태극기를 온 국민이 사랑하고 바르게 게양할 때까지 태극기 바로 달기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태극기선양운동중앙회는 이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명사 10인이 말하는 '나라사랑'

이 시대,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계 인사들이 그 해법을 제시했다.

| 박태환 수영선수 |

최상의 능력 발휘하는 것이 애국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응원석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본다. 그때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나를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국민들의 열띤 함성은 더욱 열심히 경기에 임하게 만든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성적을 내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로서 애국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다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애국의 길로 여긴다. 그렇기에 1년 3백65일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이 내겐 진정한 애국이다.

동아DB

| 박영숙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

'I Love you, two' 운동을 벌이자

유엔미래포럼은 현재 66억명인 지구촌 인구가 2150년쯤에는 36억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 역시 출산율이 1.08명에서 최근 1.13명으로 약간 올라갔지만 여전히 최저 출산국에 속한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50년부터는 사실상 '인구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급기야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명명했다. 유엔미래포럼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은 2305년쯤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는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따라서 출산이 곧 나라사랑인 셈이다.

이제 출산은 애국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I Love you, two' 운동을 벌이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사회에서 'I love you, two'라는 캠페인은 이중의 뜻을 지닌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와 함께 '사랑으로 두 명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 김승곤 한글학회 회장 |

한글사랑이 나라 잘되는 길

말은 그 민족의 머리를 깨우쳐주는 문명의 이기다. 우리말은 농업중심 시대에 만들어졌으므로 과학 용어나 학술 용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국민은 과학에 대해 무관심했다가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부터 선진국의 용어를 무턱대고 빌려 쓰고 있다.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 우리가 문화민족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말이 문화어가 돼야 한다. 민족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우리 토박이말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옛말 중에서 살려 써야 할 것은 살려서 국어사전을 열 권, 스무 권으로 만듦으로써 모든 학술 용어와 기술 용어들을 순우리말로 만들어 써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선진국을 앞서게 되고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과 글을 외면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앞날이 없다. 오늘날 미개한 나라들을 보라.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거나, 있어도 어려워서 글을 배우기 힘든 나라들이다. 이에 비해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이며 예술적이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글로써 이 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곧 대한민국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힘이자 애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애국의 시작은 교육으로부터

좁은 영토와 천연자원의 절대적 부족, 일제강점기 35년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시기와 광복 후 발발한 6·25전쟁과 분단 등 수많은 역경을 겪은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발전과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는 그 어떤 국가도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상을 뒤엎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발전을 이뤘고, 그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가 인정하는 이러한 성공적인 국가발전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장 큰 동인으로 꼽고 있다. 대한민국은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교육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자 애국하는 길이라 믿고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왔다. 이러한 인재들을 통해 높은 발전을 이뤄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교육은 중요한 성장엔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

따라서 교육은 곧 대한민국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힘이자 애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교육을 통해 극복하고,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

안보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세대들의 대한민국 사랑이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곤 한다. 고마운 일이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조국에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도 함께 기억해줬으면 하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벌인 선열들, 전쟁에서 목숨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무명용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해 대륙간 탄도탄 시험발사를 했다. 이에 따라 대북 및 대미관계는 물론 전반적 국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안보에서 더 이상의 본말전도(本末顚倒)와 도행역시(倒行逆施)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나라사랑은 애정과 비판을 통해 정부가 올바르게 국정을 조타(Steering)할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력 신장을 촉진케 하고, 선진화와 분단 극복 그리고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

지구촌가족 위한 봉사는 나라사랑 밑거름

최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자는 여론이 높다.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면 경제규모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국가브랜드 가치도 제고되고 'Made in Korea'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수출품과 문화상품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애국의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 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 민족은 두뇌도 명석하고, 끈기와 열정 또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저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이 아닌가 싶다.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방법은 봉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깨와 가슴에 태극마크를 새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해외봉사단 1천5백여 명은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 해외봉사단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쌓은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곳곳의 오지와 빈민촌에서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태극기와 'Republic of Korea'라는 우리의 국가브랜드는 항상 함께 한다. 봉사단원들의 땀방울이 굵어질 때마다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나라사랑과 지구촌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해외봉사 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 이순재 탤런트 |

미래 짊어질 젊은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동아DB

애국심은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저마다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순간적인 감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애국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온 요즘 젊은이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세대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면서 애국을 그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에 아부하는 행위로 왜곡하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그처럼 편파적이고 부

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혈연, 지연을 따지며 사분오열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서로 가슴을 맞대고 화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두뇌도 명석하고, 끈기와 열정 또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저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은 이를 발판으로 해서 재능과 역량을 열심히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애국이 아닌가 싶다.

| 김수현 드라마작가 |

각자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애국

동아DB

애국이라고 하면 참으로 거창하게 생각되지만 애국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본분을 다하면 그게 나라사랑이지 않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을 두고 애국심이 약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애국심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뭉치는 힘이 대단하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젊은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할 것이다. 젊은이들을 진정 애국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면, 위정자들이 더욱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애국심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다.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

소외계층을 잘 챙겨야 한다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선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감동과 기쁨은 잠시일 뿐이다. 진정한 나라사랑은 결코 스포츠나 몇몇 대기업 광고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는다. 특히 매일 고단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더욱 그렇다.

좋은 경치, 좋은 말도 내 배가 불러야 구경거리가 되고 복음이 되고 경전이 될 것이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얘기다. 이는 백성이 두루두루 잘사는 것을 뜻한다.

동아DB

따라서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만개할 것이다.

| 박술녀 한복연구가 |

우리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동아DB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지 생각해보니 답은 가까이에 있었다. 내 눈에 비치는 애국자는 우리 옷뿐 아니라 우리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과 유물이 소중히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잣대로 매겨지는 금전적 값어치 때문만이 아니다. 그 안에 우리의 숭고한 얼과 혼이 담겨 있고, 선조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겐 우리의 전통과 유물이 낡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배달정신과 자긍심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후손의 도리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유물과 유적도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G

정리 · 최호열 김지영 기자

나라 사랑 ='나'를 사랑!

대~~한민국!
KOREA
이원복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아…드디어 우리나라, 내고향!
KOREA

평소엔 '내나라, 내 고향'에 별다른 애착을 보이지 않던 사람도
글로벌시대에 내 나라 찾기는…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이라구.

태극기를 보거나 애국가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 지는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 이건 감동이다…

내가 살고 있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찬 행복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 그곳엔
내가 사랑하는 모든것이 있어!

시대는 글로벌화되어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고
HI!
STOP
ZOLL
DOUANE

온 인류가 함께사는 지구촌 자체가 바로 내 나라인 듯하다.
PARIS
BERLIN
LONDON
NEW YORK

그러나 글로벌화한 시대라도 내나라 없는 사람들은 서러울 수밖에 없다.
입국을 거부 합니다!
IMMIGRATIO

수천만의 인구를 갖고도 '내나라'를 가지지 못한 쿠르드족은
쿠르드족 거주 지역
흑해
카스피해
터키
지중해
이라크
이란

터키, 이라크 등의 '남의 나라'에 얹혀 살면서 온갖 서러움을 당하고 있으며
자주·독립
죽을래, 입 다물래?

과거에는 툭하면 수만, 수십만명씩 인종청소를 당하는 피눈물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타타타다다타다타다타

2천년 가까이 내 나라를 갖지못한 유대인들이 눈물겨운 노력끝에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등
생명을 걸고 내나라 지킨다!

내 나라는 곧 내가 사는 터전이며 내 나라사랑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K
KOREA

독일, 프랑스등 EU국가 젊은이들은 점차 독일인, 프랑스인 임을 내세우기 보다
어느나라 사람 이십니까?

스스로 '유럽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는 유럽인 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독일인, 프랑스인임을 잊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긍지를 저버린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 프랑스 사람 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이
프랑스는 유럽 연합을 이끄는 나라인데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를 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라는 더 넓은 세계를 품어 안을수 있는 여유와 자랑스러움의 원천이 되는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월드컵이 열리거나 김연아 선수의 연기에 태극기를 휘두르며 목이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은
대~~~한 민국!!
짜작작

우리나라만 잘되고보자는 편협한 민족주의, 국가이기주의 가 아니라
여기는 대한 민국이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나라, 내땅, 내가족, 그리고 나 자신과 세계를 향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함성인 것이다.

3·1절, 4·13임정수립, 8·15광복, 6·25전쟁…

선열의 피로 이루어진 역사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나라사랑 정신을 키우고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꾸러기 나라사랑 온라인 이벤트 |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을 키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 전용 포털 사이트 야후 꾸러기(http://kr.kids.yahoo.com)가 제공하는 '하나와 파티파티(게임과 융합된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독립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국권회복을 향한 애국정신을 되새겨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벤트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야후코리아(www.yahoo.co.kr) 및 야후 꾸러기 사이트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임시정부수립'을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하나와 파티파티'는 가상세계에서 친구를 사귀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가상공간을 여행하는 서비스로,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한 건물을 가상공간에 세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벤트 페이지나 '하나와 파티파티' 내 임시정부 건물을 방문해 임시정부 관련 자료를 학습할 수 있고, 퀴즈 이벤트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링크를 통해 국가보훈처 어린이 홈페이지인 '꾸러기 보훈광장(http://kids.mpva.go.kr)에 들어가 역사학습도 할 수 있다. 'OX퀴즈로 배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벤트에서는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 태극기 달기 운동 &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 |

행정안전부는 올해 90주년을 맞은 3·1절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전국 지방의 주요 간선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기타 공공장소나 가정에는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은 온 국민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변에 게양된 태극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교체와 보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황사나 비, 돌풍 등으로 훼손된 태극기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했다. 또한 각 지역 주민들에게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반상회보, 기관지 등 각종 매체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도 개최하고 있다.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으로 이뤄진다. 태극기 게양 행사, 태극기 목각판 찍기, 무궁화꽃 누르기 체험, 국가상징 가족 골든벨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 국내 독도지킴이 사업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바른 영토관을 심어주기 위해 독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독도교육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독도사랑은 물론 우리 영토의 중요성을

어린이에게 나라사랑의 정신과 역사를 자연스럽게 일깨워주는 꾸러기 나라사랑 온라인 이벤트.

동아DB

독도지킴이 청소년 캠프는 독도 답사와 주요시설 견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가칭 독도지킴이 운영위원회)은 전국 중고등학교 중에서 20개 학교를 독도지킴이 협력학교로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독도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다. 광역시와 각 도에서 1개교씩,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3개교가 선정된다. 협력학교로 뽑힌 학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지킴이 협력학교' 인증서를 받은 후 독도 동아리 활동을 통한 독도 영토 수호의 당위성을 교육한다. 학교당 동아리 활동비는 1백50만원이 지원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아리에서 독도수호 정신이 투철하고 독도 행사에 적극 참여한 학생과 교사 50여 명을 선정해 독도지킴이 청소년 캠프를 개최한다. 전국지리교사연합회와 한국해양대 등이 주관하는 이 캠프는 7월 하순에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전망대를 견학하고 독도를 답사한다. 독도 삽화 그리기, 모형 만들기, 답사 소감문 작성 등 다양한 창작활동도 펼친다.

| 나라사랑 실천학교 |

서울지방보훈청이 나라사랑 실천학교로 선정한 서울 배화여고와 오산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는 현충시설 탐방과 퀴즈대회, 역사특강 등으로 짜여 있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운동은 온 국민이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져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배화여고는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의 임정묘역 참배, 백범기념관 탐방, 독립기념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관 견학 등의 행사를 진행해왔다. 4월 4일 토요일에는 각 반 대표와 교사가 한 팀으로 참가하는 전교생 임시정부 관련 역사 퀴즈대회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임시정부 및 김구 선생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는 김우전 전 광복회장의 역사특강을 마련했다.

정경택 기자

나라사랑 실천학교 프로그램의 하나인 역사 퀴즈대회를 개최한 서울 배화여고(왼쪽). 국토해양부는 교사, 학생, 예술인을 대상으로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행사를 추진한다.

배화여고는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임시정부 수립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임시정부와 관련한 사진 전시, 4행시 짓기 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도 개최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고도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책과 〈백범일지〉에 대한 독후감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교내방송을 통해 낭독회를 가졌다.

나라사랑 실천학교 사업을 후원한 서울지방보훈청 이병구 청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장차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 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해마다 열고 있다. 행사는 무궁화 개화 최성기인 8월 초순 전후로 개최된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전국에서 출품한 무궁화 1천2백여 점을 전시하는 무궁화 분화 품평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백일장, 참관객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골든벨 퀴즈대회와 무궁화 페스티벌 등을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무궁화 꽃씨 나눠주기, 무궁화 페이스페인팅, 무궁화 종이접기, 무궁화 차 마시기 등의 체험 행사도 펼친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와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국적인 무궁화 붐을 조성하는 한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대표적인 무궁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산림청은 이 축제가 올해는 좀 더 대중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늘리고 사전 홍보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

국토해양부는 교사, 학생, 예술인을 대상으로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행사를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 행사는 매년 국토해양부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다가 2006년부터 해양문화재단이 위탁행사로 주관해왔다. 교육 관계자와 일선 교사에게 울릉도 및 독도 방문, 해군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도 문제와 해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청소년에게까지 이러한 교육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오는 11월 31일까지 7회에 걸쳐 열린다. 참여 대상도 교육계 종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인, 일반 국민으로 점차 확대한다. 행사 내용은 △해군작전사령부 방문 △국립수산과학원 및 부산항컨테이너 부두 등 해양관련 시설 견학 △울릉도 및 독도의 주요 시설 견학 등이다. 해양 및 독도 문제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강의와 세미나도 개최한다.

| 국립묘지를 나라사랑 어울림 공간으로 |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를 국민과 친밀도 높은 애국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국립묘지 조성과 확대, 시설 및 제도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국립묘지발전자문단을 활용해 국립묘지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

국가보훈처는 우선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공원 개념을 도입한 국립묘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묘지의 봉안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참여하는 현충선양 활동을 통

해 자발적인 방문 수요를 이끌어내고, 체험식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방문객 교육효과를 높인다. 또 국립묘지의전단 설치로 안정적인 의전 수행 기반도 마련한다.

|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 |

저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국가보훈처는 총 2백만 개 이상의 배지를 제작해 정부에 1백만 개, 민간에 1백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배지 패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과 TV 광고는 물론 일반 국민이 소지한 신용·직불카드에 '나라사랑 큰나무' 로고나 디자인을 싣는 간접광고도 추진한다. 청소년 등에게 친근한 입체 캐릭터를 개발해 뉴스전문채널, 전광판, 인터넷 등에 송출할 홍보 동영상도 제작한다.

국토해양부는 독도 및 해양시설 견학 행사를 해군본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청소년에게 독도 문제와 해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개최되는 각종 보훈행사, 지역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이벤트성 홍보도 벌인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부터 이 운동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함께하는나라사랑을 전담법인으로 지정하는 협약 체결과 유상 판매를 통한 성금 모금도 검토하고 있다.

|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 |

국가보훈처는 청소년에게 독립군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를 전국의 중학교 도서벽지 청소년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독립기념관이 주관하는 독립군 체험캠프는 4월 1일부터 11월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총 9회 진행되며 올해로 3회째다. 독립군 체험캠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캠프인 만큼 독립운동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청산리전투 등 한국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무공을 세운 정예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체험하는 독립기념관의 독립군체험학교 역사교육 프로그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독립군 유격훈련을 각색한 챌린지 활동, 암벽등반 훈련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서인자 사무관은 "이 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조상들의 투철한 독립정신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확고한 역사인식을 통해 평화공존을 위한 세계 속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뜻깊은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청소년에게 독립군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길러주는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

기금 조성, 온라인 지원 등 작은 실천 잇따라

"우리땅,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국민의례 준수, 호국 보훈의 달에 국립현충원 찾아가기….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쉽고도 다양하다. 작은 실천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사랑 방법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나라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나라사랑 기금으로 내놓기 때문이다. 농협이 발행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과 카드가 대표적이다.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은 총 판매금액(연평균 잔액)의 0.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통장이다. 또한 동해의 해양 및 자원 연구를 지원하고, 독도 영유권 역사 연구 활동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저지 캠페인 전개 등을 위한 독도사랑 기금으로도 활용된다.

고객은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웃사랑과 독도사랑을 실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품으로 구성되며, 개인 정기예금의 경우 1백만원 이상 예치하면 된다.

만 6~18세 가입 고객에게는 0.1퍼센트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지급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가입 동기를 높이고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 또한 독도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가입 고객 중 50여 명을 추첨으로 뽑아 독도여행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농협은 카드 이용액의 0.1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카드'도 3월 말 출시했다.

저축도 하고 나라사랑도 하고…

BC카드도 독도와 대한민국을 컨셉트로 한 신용카드를 내놓았다. '독도지킴이 카드'는 카드 표면에 '우리 땅 우리 정기 독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넣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킨다. 매년 '독도지킴이 카드'의 신용판매 금액 중 0.2퍼센트를 적립해 독도관련 단체에 전달하고, 우수 고객을 선발해 독도여행을 보내준다. '대한민국 카드'는 거친 파도 속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 대한민국이 격랑을 헤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 결제금액의 0.1퍼센트를 매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반크(VANK)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약어인 반크는 인터넷상에

반크(VANK)는 한국을 세계에 바르게 알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다.

동아DB

동아DB

걸어서 전국을 종단하는 국토순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도전정신, 자신감을 심어준다.

서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1999년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도 알리기 운동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확산 저지 운동을 들 수 있다. 독도·동해 영문 세계지도 제작 및 배포, 해외 교과서 출판사 및 교육기관에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사례 영문 자료 보내기 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 중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표기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는 일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문 한국홍보 자료 제작, 해외 한글학교 한국 홍보 자료 지원, 동북아 평화 외교 리더 양성 캠프,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한민족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초중고교와 반크 동아리 간 자매결연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반크 활동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평생회비(2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반크 본부에서 사이버 외교관 활동에 관한 교육일정 안내 e메일과 사이버 외교관 웹메일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 e메일을 보내준다. 반크가 발행한 단행본을 구입해 한 달 동안 사이버 외교관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해마다 보훈학술 논문을 공모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방안, 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등 보훈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응모하면 된다. 대학(원)생(전문대생 포함), 일반부(일반 국민), 교사부(초중고 교사)로 나누어 공모한다. 분량은 A4용지 23~35장으로 요약문 2장을 덧붙여야 한다. 올해 접수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수상자에게는 상금(최우수 2백만원 등) 외에도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기회를 준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문예작품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표어, 포스터, 시, 수필, 참전수기, 추모헌시 등이다. 올해 공모는 이미 끝났지만 매년 진행하므로 내년에 참가하면 된다.

'행복한 대한민국' 통장은 총 판매금액의 0.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통장이다. 독도사랑 기금으로도 활용된다.

나라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순례다. 해마다 여름이면 여러 사회단체와 기관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젊은이들에게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도전정신, 자신감을 심어준다.

동아제약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펼치는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올해도 1백44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7월 1일 전남 해남에서 출정식을 갖고 나주, 광주, 김제, 논산, 공주, 천안, 평택 등을 거쳐 7월 21일 서울까지 총 5백66.3킬로미터를 완주할 예정이다. 4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G

글 · 최호열 기자

기성세대의 애국 VS 신세대의 나라사랑

약소국의 설움 딛고 이젠 세계화 자부심

한국 사회의 나라사랑 방식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애국의 하향식 방법은 퇴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성이 강조됐다. 이런 상황은 나라사랑의 세대별 차이를 강화한다.

동아DB

3·1절을 맞아 '내 가정 국기달기 캠페인'에 동참한 서울 성수동 강변동양아파트 주민들.

애국적 감정, 즉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고, 그 주된 속성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연히 근대적 국가의 발생부터 살펴봐야 한다. 서구의 정치학자들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대적인 국제관계와 주권국가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30년전쟁을 종식시킨 이 조약 이후 정치적 의미에서의 안보(Security) 개념이 싹트게 되었다.

지역적으로 제한된 국가는 소속원, 즉 시민들에게 내적인 안전(경제적, 사회적 안전)과 외적인 안전(외교와 군사적 힘)을 제공해 그들에게서 신뢰와 충성을 이끌어낸다. 그 반대급부로 시민들은 위험에 빠진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세금 징수를 용인하는 감정적인 연대를 발전시킨다. 나라사랑은 이처럼 내외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적인 감정이다.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제도들은 법적인 것에서 감정적인 것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감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국가는 먼저 다른 종류의 정체성,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정체성과 이를 지지하는 제도들과 경쟁해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충성스러운 구성원이 없이는, 즉 국가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시민이 없이는 국제관계와 경쟁에서 큰 약점을 갖게 된다. 요컨대 나라사랑 정신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 맺음과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다.

약소국 설움 견뎌낸 장년층의 애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 특히 타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더하다. 나라사랑의 감정을 동원(Mobilization)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경로가 있다. 하향식 경로, 즉 명령에 따라 나라사랑을 끌어내는 방법과 시민들의 애착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상향식 경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향식 방법은 대부분의 독재국가나 권위적 국가에서, 상향식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된다. 하향식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정부 혹은 정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정권보다 나라의 수명이 길다는 사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한국 사회의 나라사랑 방식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했다.
기성세대가 하향식 방법에 익숙하다면 젊은 세대는 상향적이고 자발적이다.

동아DB

마치 특정 집단만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라와 정권은 동일한 것이 된다.

한국 사회의 나라사랑 방식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굳이 시기를 구분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민주화 이전에는 정권이 동원 혹은 조작한 애국주의가 강조됐다. 훈육과 계몽, 선전 선동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집권을 고착하는 여러 방법이 조직적으로 실시됐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정권유지와 결부된 애국은 핵심적 요소였다. 의례도 실시됐다. 학교에서는 '애국조회,' 거리에서는 '국기 하강식,' 집회에서는 '국민의례'가 당연시됐다. 이 의례는 통상 나라와 최고 통치자를 같은 반열에 두었다.

나라사랑은 내외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애착적인 감정이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한국에 대한 소속의식과 애착이 이후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

민주화는 국가, 정확히 말해서 정권과 국가의 연결을 끊었다. 또한 애국의 하향식 방법은 퇴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성이 강조됐다. 정권이 길러주던 애국심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과 만난다. 이제 개인들의 정체성의 근거인 국가는 다른 것과 경쟁해야 한다. 전통적인 정체성 범주인 계층, 젠더(性 · Gender), 지역, 하위문화, 특히 타 국민의 그 나라에 대한 법적, 문화적 소속감 등은 정체성의 시장에서 국가 소속의식과 경쟁을 벌인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화가 강화되면서 이런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은 나라사랑의 세대별 차이를 강화한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한국에 대한 소속의식과 애착이 이후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와는 많이 다르다. 이들은 약한 국가의 '설움'을 피부로 절감했기에 강력한 국가의 힘, 즉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화의 물결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이미 사회적 참여와 활동에서 한 발 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세대는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기에 정체성의 경쟁 및 혼란의 정도가 약하다. 이들에게서 배타적 애국주의가 번성하는 것은 이런 환경의 산물이다.

성장 세대의 상황은 다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정체성 시장에 내던져졌다.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은 이들에게 그다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계화된 청소년 문화는 이들의 생활을 이전 세대와 다르게 구조화한다. 국제적 능력, 이를테면 언어능력과 타문화 이해능력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됐다.

그것은 개인들의 취업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제 교류에 대한 참여 역시 매우 높아졌다. 국제성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 결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는 매우 높아져 배타적 애국주의의 위험도는 낮아졌다. 하지만 나라사랑의 정도도 낮아졌다.

세계화시대 살아갈 청소년의 나라사랑

요컨대 오늘날 성장 세대는 역설적 상황에서 자란다. 세계화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동시에 국가에 대한 애착도 키워가야 한다. 그럼에도 성인들은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성인들은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칭찬하기보다 실망하고 꾸중하는 게 더 편하다. "생존을 위해 국제화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제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실망하면서도 "나라사랑이 약하다"고 꾸중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처한 역설적 상황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없다. 아마도 중용과 균형 맞추기가 유일한 답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성인들은 그들이 처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공감과 책임의식도 없이 실망과 꾸중이라는 편리한 해결책을 선호한다. 결국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보다 세대 간의 차이와 긴장을 더욱 높일 뿐이다. G

글 ·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벤소니를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 거예요.
모든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업을 다지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벤소니’를 함께 만든 동업자 벤저민과 소니아 윤(오른쪽).

뉴욕을 사로잡은 디자이너 소니아 윤

“종이접기하던 솜씨 디테일로 살아났죠”

지난 2월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 36번가 스카이라인 갤러리 무대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면서 패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쇼윈도의 마네킹마냥 시선을 고정한 모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무대는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전형적인 패션쇼가 아니라 정지된 포즈로 옷을 선보이는 프레젠테이션. 무대 아래가 분주해졌다.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은 투자 가능성을 점치느라 무대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패션에 민감한 뉴요커들은 이번 시즌 유행을 머릿속에 그렸다. 이들 사이를 바삐 오가던 소니아 윤(28 · 한국명 윤현정)의 얼굴에 생기 넘치는 미소가 돌았다. 이렇게 뉴욕 패션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열린 ‘벤소니(Bensoni)’의 첫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다.

지난해 12월 소니아 윤은 제일모직이 매년 국제무대에서 떠오르는 한국계 신인 디자이너를 뽑아 지원하는 삼성패션디자인펀드(SFDF) 수상자로 선정됐다. SFDF는 한국 패

션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만든 제도. 소니아 윤은 SFDF 지원금으로 벤소니의 첫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기회로 벤소니는 세계적 브랜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

벤소니는 한국의 여성 디자이너 소니아 윤이 미국 동업자 벤저민과 함께 2007년 함께 만든 여성복 브랜드다. 브랜드 이름도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해 만들었다.

수많은 별이 뜨고 지는 패션계에서 벤소니는 첫 걸음부터 한마디로 '대형 사고'를 쳤다. 벤소니의 고급스러우면서 현대적인 의상은 인기를 끌었고 미국 현지뿐 아니라 일본, 중동 지역 수출로 매출 1백만 달러를 올렸다. 뉴욕 현지 언론도 벤소니에 대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일으키는 스파크가 아름답고도 강렬하다"고 호평했다.

소니아 윤이 디자인한 옷을 입는 고객 중엔 팝스타 제니퍼 로페즈와 차세대 청춘스타인 레이첼 빌슨 같은 유명인도 많다. 벤소니의 옷을 입은 스타의 파파라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벤소니의 몇몇 제품이 동나기도 했다.

"이른바 명품은 일반인이 사기에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대안이 되는 것이 신인 디자이너의 고급스러우면서 현대적인 '하이 컨템퍼러리(High Contemporary) 브랜드'입니다. 명품 옷 절반 값에 젊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의 개성 넘치는 옷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벤소니의 인기 요인인 것 같아요."

제니퍼 로페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고객

소니아 윤은 일곱 살 무렵 영국 런던으로 건너간 후 중학생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선화예중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1997년 가족과 함께 미국 뉴저지로 이사한 그는 2년 뒤엔 뉴욕 명문 파슨스 디자인스쿨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다. 파슨스 재학 시절 뉴욕 고급 백화점인 삭스 피프스가 실시한 유니폼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그에게 이런 패션 감각을 다져준 건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그림을 가르쳐주셨어요.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분이셨죠."

파슨스 디자인스쿨 1학년 때 만난 벤저민은 소니아 윤에게 좋은 친구이자 1, 2위를 다투는 경쟁 상대였다. 졸업 작품전을 같이 준비하며 두 사람은 서로 훌륭한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소니아 윤은 "한국 여성으로서의 조신함과 차분함이 자유분방한 크리에이터인 벤저민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는 디딤돌이 됐다"고 말했다.

"벤저민은 모든 면에서 나와 반대예요. 하지만 그 반대되는 요소 덕분에 더 조화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요. 충돌이 생기면 타협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요."

동양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창의성과 전통, 여성미와 남성미. 상반된 두 가지 요소는 두 사람의 파트너십을 통해 벤소니의 독특한 분위기로 재탄생했다.

소니아 윤이 다소 파격적인 디자인을 하면 이성적인 벤저민이 상업적인 감각으로 다듬었다. 벤저민이 실용적이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하면 소니아 윤은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했다. 디테일에도 그의 한국적인 색깔이 묻어난다. 그만의 '색깔'은 바로 종이접기에서 비롯됐다. 한 장의 종이를 가위질이나 풀칠 없이 접기만으로 모양을 만드는 종이접기가 디테일의 한 부분이다.

"어릴 때 종이접기에 푹 빠졌어요. 옷을 디자인할 때도 종이접기를 하던 그때가 많이 생각나죠. 자연스럽게 옷의 디테일한 부분에도 종이접기를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벤소니' 선보일 것

소니아 윤의 하루는 오전 9시 사무실에 출근해 e메일과 뉴스를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후엔 대부분 자료를 조사하거나 의상 디자인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짬이 나면 근처 갤러리나 브루클린과 맨해튼에 있는 벼룩시장을 둘러보며 아이디어를 얻는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그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꾸고 있다.

"벤소니를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 거예요. 남성복, 액세서리, 핸드백, 슈즈 라인, 인테리어 디자인, 자동차 등 모든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벤소니 사업을 다지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벤소니를 선보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적인 문화 배경이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뉴욕 패션 무대에도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소니아 윤. 그는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한국의 후배들에게 꿈을 크게 품으라고 당부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지난 2월 '벤소니'의 첫 뉴욕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오른 모델들.

환경부 '클린 코리아' 홍보대사 노홍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A-YO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아주 듬뿍 받고 있는 방송인 노홍철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환경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클린 코리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요, 저를 아는 모든 형님, 누님, 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적역을 맡았다고 하시더군요, 하하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청결'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 별명이 '깔끔남'이겠어요. 자, 그럼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저 노홍철과 함께 깨끗한 환경,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보아요. Go, Go, Go!!

그런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가 뭘까~요? 환경부가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인데요,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농어촌 만들기' '가고픈 산, 걷고 싶은 길 만들기' '맑은 하천,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을 기본 과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범국민적 참여 확산,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처리, 하천이나 하구 등의 묵은 쓰레기 처리, 간벌목 등 부산물 수거 및 자원화를 중점 해결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를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해 고용창출에도 힘쓴다니, 와우, 그거야 바로 그거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우선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심, 농산어촌 및 공원 등의 묵은 쓰레기 처리를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요. 올해 1백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천8백6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2012년까지 1천37억원을 들여 총 1만4천3백7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연환경연수원 및 환경교육홍보단 강사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할 건데요, 찾아가는 이동환경교실 운영이나 환경교육 시범학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 환경보전사례를 확산하고 보급하는 데도 힘쓴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월 1회 이상 '클린 데이(Clean Day)'를 정해 자율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고요, 버스정류장 부근에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좋아×3, 가는 거야"

'클린 코리아' 홍보대사인 방송인 노홍철 씨가 3월 25일 경기 안산시 시화호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와 나무 심기 등 '국토 대청소'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안 양식어장 쓰레기 수거 처리를 지원(연 2백7억원)하고, 하천과 하구 등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수원 댐 상·하류 쓰레기 수거체계도 구축한대요. 이 중 하류지역 방치 쓰레기 수거 처리 시범사업은 연간 11억원을 들여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요, 지자체의 하천 상·하류 쓰레기 처리에도 2012년까지 3백56억원을 쏟아 총 1천5백3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염되고 훼손된 87개 하천 1백킬로미터 및 20개 도랑의 퇴적물 제거, 서식지 및 생태복원사업도 추진(연 9백50억원)한답니다.

환경정화운동에 동참하세요

간벌목 등 부산물 수거 및 자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선발해 운영하고 임업 기계장비 등을 활용해 부산물 수집(연 3천명 고용·약 18만세제곱미터 수집)을 확대합니다. 수집된 부산물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 및 목재산업용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들 및 공공시설 등 1만1천 가구에 나무 땔감을 무상 지원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니, 아니 이렇게 가슴 따뜻한 사업이 있을 수가! 멋져, 멋져, 멋져요!!!

"클린 코리아는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농어촌 만들기' '가고픈 산, 걷고 싶은 길 만들기' '맑은 하천, 깨끗한 바다 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면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환경부 혹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우리 국민들도 실생활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3월 25일 '클린 코리아' 홍보대사 자격으로 경기 안산시 대부도(시화호 주변) 일대에서 벌인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에 참여했어요. 1천1백여 명의 시민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 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시화호 주변 쓰레기 수거와 나무 심기 등의 작업을 벌였죠. 꼭 국토 대청소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클린 코리아–그린스타트'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생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여름철에는 섭씨 26~28도로, 겨울에는 섭씨 20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편, 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이나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등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도 아껴서 쓰고요, 철저한 분리 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고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하며 경제속도로 운전하는 등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무를 가꾸고 심는 것도 잊지 말아야죠. 물론 깨끗한 국토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저 역시도 그동안 집안 청소 외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정화활동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주변 환경 정화운동에 앞장설 계획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깨끗하고 밝고 활기찬 사회, 희망찬 내일을 향해 외쳐보시지 않겠어요? 좋아! 가는 거야!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무한~도전!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동아DB

국토해양부는 훼손된 갯벌과 습지를 복원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관광지로 활용하는 등 녹색가치를 실현할 갯벌복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갯벌은 말랑말랑하지만 힘이 세다"

순천·고창·사천 등 세계적 갯벌 복원키로

국토해양부는 갯벌복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사업지 3개소를 선정했다. 오염된 채 버려진 과거 갯벌들을 건강하게 복원해 미래 녹색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갯벌복원은 환경적, 생태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갯벌은 수많은 해양생물이 깃들여 사는 서식처이자 산란장이다. 인간에겐 다양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식량원이며, 매립을 통해 많은 토지를 만들어 내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또한 오염 정화와 재해 예방 기능은 물론 기후변화 조절 기능이 뛰어난 환경 지킴이이기도 하다. 실례로 갯벌 5제곱킬로미터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일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0톤 처리)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다.

한국은 세계 5대 갯벌을 지닌 나라지만 그동안 많은 갯벌이 폐염전, 폐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 상실로 훼손된 채 버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갯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훼손된 갯벌을 건강하게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의 국내 개최를 계기로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생태적으로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해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2008년 현재 순천, 보성, 벌교의 갯벌을 포함한 내륙 습지 6개소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한 상태다.

정부는 2008년의 '갯벌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바탕

으로 같은 해 4월 갯벌복원 정책 워크숍, 4~12월 갯벌복원 대상 현지 조사 및 복원계획 연구용역, 9월 갯벌복원 국제 심포지엄, 2009년 2월의 갯벌복원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갯벌복원 사업을 준비해왔다. 국토해양부는 갯벌복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갯벌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 2일 '갯벌복원 추진계획의 수립과 3개소 시범사업지 선정'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완료 후 복원지역 단계적 확대

이번에 발표된 갯벌복원 시범사업지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의 폐염전, 전북 고창군 심원면의 폐양식장, 경남 사천시 서포면의 송도-비토섬 간 둑길 등 3개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갯벌복원 희망지 81개소 중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 습지보호지역과의 인접 여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순천시와 고창군의 경우 폐염전과 폐양식장이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염습지로 복원해 생태계 보전 복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1992년 연륙도로 개설에 따라 해수 유통이 단절돼 갯벌이 오염됐던 송도-비토섬 간 둑길은 다리를 놓아 해수 유통을 복원할 계획이다. 사천시에서는 갯벌복원 사업을 계기로 비토섬 일대 주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들 복원사업은 사업비 2백40억원 규모로 2010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간에 분담(국가가 50~70퍼센트 분담)하되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전액 분담하도록 조율했다.

국토해양부 이재연 사무관은 "갯벌복원을 통해 해양생물자원 확보, 해안재해 예방 효과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생태관광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된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복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물다양성 증진과 수산자원 생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갯벌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안 습지의 50% 이상이 훼손된 미국에서는 2008년 말까지 39억 달러(약 5조7백억원)를 투자해 샌프란시스코만, 루이지애나 연안 등에서 다양한 습지복원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진행해온 일본에서는 과거 어패류가 풍부했던 도쿄만을 되살리기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해 효과를 보았으며, 홍콩에서도 어류 및 새우 양식장과 논으로 사용되던 지역을 습지로 복원한 마이포 습지공원을 2006년 5월 개장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의 성공적인 갯벌복원을 통해 우리도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 5대 갯벌을 지닌 나라지만 많은 갯벌이 훼손된 채 버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갯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갯벌을 건강하게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갯벌복원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갯벌복원 사업의 추진 체계를 잡기 위해 갯벌생태, 토목, 수문학, 해양공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갯벌복원 전문가위원회'를 두고 복원사업의 자문과 평가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자체적인 '지역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원 절차 및 지침(가이드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어느 시인은 갯벌을 두고 '말랑말랑한 힘'이라고 노래했다. 갯벌은 말랑말랑하지만 힘이 세다. 모시조개 구멍도, 낙지 구멍도, 게 구멍도, 갯지렁이 구멍도 있는 갯벌. 갯벌복원은 우리에게 갈대밭 사이로 이름 모를 여러 종류의 게와 짱뚱어 그리고 함초를 보게 해줄 것이다. 갯벌이 지닌 진정한 녹색가치를 확인시켜줄 것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갯벌은 해양생물의 산란장이고 서식지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을 안겨주는 공간이다.

조영철 기자

"동화책 50권 무료로 드립니다"

소외계층 어린이 '드림북'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생겼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출판사, 교육기업이 손잡고 펼치고 있는 '드림북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 중에서 매월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0권 내외의 도서를 책장과 함께 보내주는 사업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어린이가 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무료로 책을 보내주는 '드림북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개 출판사 및 교육기업과 함께 저소득 가구와 아동복지시설의 영·유아들에게 무상으로 책을 기증하는 드림북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올해 약 29만 권(약 29억원 상당)의 책을 기증할 예정이다.

드림북 프로젝트는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 중 매월 20가구(총 2백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50권 내외(총 1만 권)의 도서를 지원한다. 또 다달이 소장도서가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2곳(총 20곳)을 선정해 시설당 5백권 내외(총 1만 권)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별지원 방식으로도 독서 여건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27만 권의 도서를 추가로 기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올해 저소득층 6백여 가구와 취약 아동복지시설·기관 5백2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4월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 교사들이 발굴한 서비스 대상자 8명과 아동양육시설인 화성영아원에 총 2천여 권의 도서를 참여기업 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했다.

도서 외 74억원 규모 학습지원도

지원을 원하는 가구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 교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2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 기업들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교원, 구몬학습, 대교, 아이북랜드, 영교, 웅진씽크빅, 장원교육, 한솔교육, 한우리가 참여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개별 지원 방식으로도 독서 여건이 열악한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27만 권의 도서를 추가로 기증할 계획이다. 또 이들은 드림북 프로젝트 외에도 학습지원을 포함해 총 74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펴기로 했다.

웅진씽크빅 교문사업기획팀 임탁균 과장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협약식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고객의 소리듣기' 통합시스템 도입 한국관광공사

지난해 의료관광객 2만7천명 유치

'그곳에 가고 싶다.' 관광은 이처럼 소박한 바람이 마음속에 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가보니 좋더라'는 입소문은 관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세계인을 대상으로 '관광한국'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이 '고객만족'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 역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감동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품격 고객관리… 고객만족도 '최고'

2007년에 'KTO(한국관광공사 · Korea Tourism Organization) CS(고객만족 · Consumer Satisfactory)천사(100+4)'라는 고유 서비스 브랜드를 개발했고, 2008년에는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양적 관리 위주로 시행되던 CS활동을 각 부문에 질적 관리 지표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 전환기를 맞이한 것도 고객감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무엇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고객서비스 혁신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 우수 사례로는 고객의 소리(VOC · 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를 위한 VOC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기존 14개 웹사이트로 분산관리하던 접수창구를 한 개 사이트(www.visitkorea.or.kr)로 통합한 것. 시스템 통합뿐 아니라 고객이 온라인으로 문의할 경우 60분 이내에 처리하는 등 고객의 소리에 대한 반응속도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같은 처리 속도는 2007년도의 84분에서 20분을 단축한 것으로, 이런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VOC 답변만족도 조사에서 2007년 89점을 기록했던 것이 2008년에는 91.3점으로 향상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고객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CRM(고객관계관리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목표를 초과하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사진은 경북 안동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중동 기자들.

한국관광공사는 본사와 해외 27개 지사의 실적을 종합한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펴냈다(아래).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고품격 관광 수요를 반영해 33개 관음성지 순례상품을 개발했다.

시스템에도 적용돼 기존 정보기술(IT) 기반 CRM에서 마케팅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 기존 시스템이 고객과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활동 이력을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한 방식이라면, 신규 시스템에서는 관광마케팅시스템(TMS · Tourism Marketing System)에 있는 공사 · 고객 간 사업이력이 그대로 CRM으로 연동돼 다각도의 고객 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 또한 마케팅 도구로서의 CRM 활용도 가능해졌다.

한국관광공사는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 문화를 전파하고,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고객접점 단위별로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개선활동을 추진했다. 이런 노력 결과 한국관광공사의 공기업 고객만족도는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단계(90~1백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의료 · 순례 상품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지난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해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외국선수단 유치를 들 수 있다. 정부와 주요 핵심고객들에게서 스포츠를 활용한 외래객 유치 요구가 제기되자 한국관광공사는 베이징올림픽 해외선수단 유치 전략을 세우고 각국에 공문과 홍보물을 보냈다. 또한 적극적인 상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59개국 1백94개 팀 3천6백6명의 선수단을 유치했다.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상품을 개발한 사례로는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들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의료관광객 2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병 · 의원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지사망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 덕에 지난해 총 2만7천4백44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했다.

이 밖에도 일본인 관광객의 고품격,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33개 관음성지 순례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는 일본인 관광객 중 베이비부머와 실버층을 겨냥한 것으로 관음전 또는 협시불을 모시는 사찰을 순례하고, 주지스님 법화와 발우공양, 다도체험 등 사찰생활을 체험하는 명품관광 콘텐츠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순례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당초 유치목표 인원 3천명의 2배가 넘는 6천6백50명의 해외 순례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공항 환승객 수가 급증할 것을 예상, 환승객을 트랜싯 관광객(24시간 이내 무박 단기 투어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9개 테마, 20개 트랜싯 상품을 개발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고객접점 마케팅을 벌여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만2천2백4명의 트랜싯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이 수치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고 실적이다. G

글 · 구자홍 기자

Interview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고객 섬김 · 투명경영이 경쟁력"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3월 글로벌 경영시대에 걸맞은 관광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설정해 선포했다. 기업 비전을 '매력 있는 관광 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창의성' '전문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객 섬김'을 최우선 개념으로 한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설정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2007년 11월 CEO로 부임한 오지철 사장이 있다. 관광전문가로서 한국관광공사의 수장으로 부임한 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오 사장은 평소 "기업경영에서 윤리투명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해왔다.

윤리투명경영을 구체화하기 위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과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Clean KTO'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리경영 실천 노력의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품 향응 수수율 면에서도 2년 연속 0퍼센트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 9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을 천명하는 국제적 협약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뒤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경영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사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녹색관광팀을 신설하고 올해 4월 8일 녹색경영 비전 및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관광공사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를 종합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관광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발간했고, 본사와 해외 27개 지사의 실적을 종합한 사회공헌활동 백서도 펴냈다.

“학교폭력 법적 대안 없나요?”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

“법에도 ‘인정’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법적 대안이 있나요?” “주민 시위 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방법은 있나요?” “조사해보니까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제처장에게 쏟아낸 질문 가운데 일부다. 어린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질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같은 어린이들의 질문 하나 하나에 성의껏 답변을 해줬다고 한다. 법제처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어린이들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이다. 지난해 제1기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했던 법제처가 올해 4월 6일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5백명 가운데 2백명과 학부모 등 4백명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생활 주변의 법과 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축하했다.

4월 6일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에는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5백명 가운데 2백명과 학부모 등 4백명가량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제처는 분기별로 어린이법제관을 직접 초대해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법제처장이 직접 선정한 우수 추천도서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에코맘(Eco-mom)이 되어주세요”

여성부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4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 위민넷(www.women-net.net)에서 ‘지구특공대, 에코맘이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부터,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슬로건으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를 선정하는 등 실천적인 환경보호 메시지를 강조했다.

또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 에코활동 정보’와 ‘핸드메이드 친환경 제품 만드는 법’ ‘녹색소비 가능한 곳’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호 정보도 전달한다. ‘매일 매일 한 가지, 환경 도장 꾸~욱’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선물도 지급한다.

여성부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4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

‘먹다 남은 약’ 동네 약국에서 회수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4월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것을 올해에는 수도권 전 지역과 광역시, 도청소재지, 천안, 아산, 순천, 포항, 진해, 김해 등 희망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 이로써 전국 2만1천여 약국 중 78퍼센트인 1만6천4백여 약국이 참여하게 됐다.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3월 11일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정부는 폐의약품 회수 사업을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폐의약품 회수에 참여하려면 수거함이 비치된 동네약국을 찾아가면 된다. G

정리 · 구자홍 기자

정경택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2화
4대강 살리기
글 이연수 그림 이호

두루미 [Red-crowned crane]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 조류
학명 : Grus japonensis
그루스 자포넨시스
천연기념물 제202호
꼬르륵

먹을 게 통 없지?

미안허이.
딸랑
딸랑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 누렁이 똥오줌도
그대로 흘려보냈고,

우리 다니기 좋으라고
너희 먹이 사는 습지를
콘크리트로 발라놨어.
강가 손바닥만한 땅에 농사 지어
먹겠다고 비닐하우스 지어다가
슬금슬금 농약에 비료까지 흘려보냈고.

이젠 우리 누렁이 똥오줌 그냥
흘려보내는 일 없을 게야.
축산폐수 정화처리장을 짓는다네.
휙!
흥!

나라에서 이 콘크리트 둑도
없애버린다는군.
그러면 습지가 생겨 물을
깨끗하게 한다며?
아니 그걸
이제야 아셨나?

이제 슬금슬금 농약,
비료 흘려보내는
일도 없을 거네.
끄덕
끄덕

조금만 기다리게나…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생계비 대출의 문이 한결 넓어졌다.

직업훈련 받는 동안 저리로 생계비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직업훈련을 1개월 이상 받고 있는 실업자는 실업 사실만 입증하면 소득 및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 '직업훈련 수강생 생계비 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직업훈련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연리 2.5퍼센트의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황효정 사무관은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출 제도가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후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직업훈련 활성화와 고용안정 장려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했다. 배우자가 없는 실업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 직계비속과 한집에서 같이 살거나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단독 가구주여야 생계비를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실업자가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실업 사실만 입증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훈련 요건도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새롭게 대출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해당된다. 여태까지는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계 학원에서는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술계 학원 훈련과정 수강생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출 대상에 포함했다.

'1개월 이상 교육 이수'면 대출 가능

이번 조치는 전국 1만6천명 실업자를 대상으로 56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월 1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백만원까지, 실업자는 6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부분의 실업자가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퍼센트 별도)을 해주고 있다.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 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 요건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의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G

글 · 차선아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국방부 소속 전통의장대가 '무령지곡'에 맞춰 보무당당하게 입장하고 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반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선

3군 의장대 퍼레이드 "던져 총"

허공을 찌르는 십팔기와 창공을 가르는 '던져총' 동작에 관람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매주 토요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펼쳐지는 국방부 의장대 행사는
국민들에게는 우리 군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주고 있다.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이 오랜만에 떠들썩하다. "국방부 의장대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진행 요원들의 유창한 영어, 중국어 안내 방송이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국방부 의장대와 군악대 대원들의 정례 의장 및 군악 행사가 열린다. 보무도 당당한 퍼레이드와 양악 공연, 전통 의장대 시범, 여군 의장대의 공연, 국악 공연, 3군 의장대 시범 등 다채로운 내용이 관람객들의 흥을 돋운다.

특히 인기 있는 것은 국방부 전통 의장대의 십팔기 시범과 여군 의장대의 공연. 십팔기는 조선 정조 14년에 편찬한 종합 무예 군사교범인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조선의 국기(國技)를 말한다. 철저하게 고증을 거친 조선시대 군복에 현대적 이미지와 활동성을 가미해 만든 의상을 입은 대원들은 "찔러!" "세워!" 기합 소리와 함께 월도를 휘두르고, 창을 찌른다. 5분여의 짧은 시범이지만, 선인들의 무예와 멋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여군 의장대는 목총과 깃발을 자유자재로 돌리는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세계 유일'의 여군 의장대는 지(智) 덕(德) 미(美)를 갖춘 소수정예로, 부사관급 이상에서 선발된다고 한다.

진짜 서비스, 마스코트 6명과 찰칵!

뭐니 뭐니 해도 압권은 3군 의장대의 통합 시범.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 의장대로 구성된 3군 의장대는 9개의 다양한 대형과 개인별 동작을 한 치의 실수 없이 일사불란하게 보여준다. 특히 순차적으로 총을 하늘로 높이 던졌다가 받는 '던져총' 동작은 관람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끌어낸다.

1시간여의 행사가 끝나면 의장대원들의 '진짜 서비스'가 시작된다. 바로 관람객들과의 기념 촬영. 특히 이 서비스는

나들이를 온 가족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다. 특히 이날의 '스타'는 6명의 마스코트들이었다. 호국이(육군), 돌고래(해군), 독수리(공군), 진돗개(해병대), 빨간 베레모를 쓴 여자(여군 의장대),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전통 의장대)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마스코트들 옆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다.

총 2백22명의 의장대원들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4월부터 6월 27일까지(상반기), 10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하반기) 매주 토요일 오전에 선보인다. 국민들에게는 청와대를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군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행사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국방부 의장대원과 군악대원들로, 모두 정예 장병이다. 각 군에서 선발된 장병들은 3주 동안 의장병집체교육을 통해 의장대원 자격을 심사받는다.

전역 미군도 "Good~" 우리 軍 우수성 알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은 고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조심해도 훈련 중에는 간혹 사고가 나기도 한다. 공군 의장대 소속의 한 대원은 "총을 돌리는 훈련을 할 때 자칫하다간 머리 오른쪽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라며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행사에 나와 국민들이 흥겨워하는 것을 보면 힘든 걸 잊게 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걱정되는 건 곧 다가올 더위다. 한여름엔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장시간 뙤약볕 속의 공연은 자칫 일사병을 부를 위험이 있어, 항시 의무병이 대기한다. 특히 신참들이 주로 맡게 되는 마스코트의 경우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편 중국인, 일본인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던 이날 공연에서는 유독 나이 지긋한 미국인들이 많이 보여 이채를 띠었다. 알고 보니 한국 파병 경험이 있는 퇴역 미군들로, 오랜만의 동우회를 한국에서 연 것이라고 한다.

1960년과 1974년 두 차례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리처드 시너블 씨는 "몰라보게 발전한 한국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구석구석을 보고, 판문점에서 근무했던 옛 한국인 전우들도 만날 생각입니다"라며 "박진감 넘치는 음악이 어우러진 멋진 행사였습니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렸다.

또 상명대 부속 여자고등학교 '세상보기 반' 학생들을 인솔해 이곳을 찾은 최홍식 교사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청와대를 보고 학생들이 국가관을 새롭게 키우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꽃들이 만발한 4월,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주말엔 청와대 앞 광장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흥겨운 음악 속에서 의장대원들의 절도 있는 동작을 보게 되면 그곳이 우리 군의 우수성을 발견하는 산 교육장임을 알게 될 것이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지호영기자

1. 3군 의장대의 화려한 '던져총' 동작. 3군 의장대는 육군, 해군 및 해병대, 공군 의장대로 구성되어 있다.
2. 흥겨운 리듬과 박력 있는 동작에 흥겨워하는 관광객들.
3. 여군 의장대 마스코트와 기념 촬영. 총 6명의 마스코트가 행사에 참가한다.

24시간 한강 지키는 파수꾼, 한강경찰대

매일 한 명 이상 투신… 내 가족 구조하는 심정으로 출동

한강은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생(生)과 사(死)의 경계이기도 하다. 매일 한 건 이상 발생하는 투신사고 때문에 한강경찰대는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차가운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바닥을 더듬으며 시신을 찾는 궂은일은 사명감이 없다면 해내기 어렵다.

올해 설 바로 전날인 1월 25일 밤 11시쯤, 한강 양화지구 선착장 상류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다급하게 달려나가 순찰선에 올라탄 한강경찰대 이권태 1팀장과 유병종 경사는 30대 여자를 구조했다. 그런데 119구급대가 여자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가족과 연락을 하던 중 구조된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아들을 안고 한강에 뛰어든 것이었다. 이 팀장 일행은 다시 한강으로 출동했다. 선유도 구름다리 부근에서 아이를 찾아낸 이 팀장은 서둘러 응급조치를 했다. 하지만 한겨울 시린 강물에 떨어진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두 돌도 안 된 어린애였어요. 그 조그만 몸을 제 손으로 건졌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팀장은 구조작업을 하다 보면 힘이 드는 것보다 안타까울 때가 더 많다고 말한다.

한강시민공원 한편에 있는 한강경찰대(대장 김영달 경정)는 하루 24시간 시민과 한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망원, 이

익사 방지와 인명 구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강경찰대에는 특전사, 해병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다. 김영달 대장(뒷줄 가운데)을 비롯해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촌, 뚝섬, 광나루 4개 치안센터에 23명의 대원이 근무하며, 행주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41.5킬로미터에 이르는 곳을 지키고 있다.

익사 방지와 인명 구조, 시신 인양, 범죄 예방 및 단속 등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 대원들은 대부분 특전사, 해병대, 수중폭파대(UDT), 해난구조대(SSU) 등 특수부대 출신이다. 또 다들 선박 조종, 잠수, 인명 구조 등 3개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한강경찰대는 하루 평균 4, 5번 출동하고, 1건 이상 사람을 구조하거나 시신을 인양한다. 한강에서 거의 매일 투신사고가 생기는 것이다.

투신 사고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다. 여름에 한강을 찾아오는 사람 수가 훨씬 많은 데다, 겨울에는 세찬 바람에 출렁거리는 강물이 위압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 낮보다는 밤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밤에 술을 마시고 한강변을 걷거나 서 있는 사람을 자살하려는 사람으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인명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인명 구조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대원들은 순찰선으로 뛴다.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순찰선에서 구조 장비와 잠수복을 착용한다. 구조 장비와 잠수복은 순찰선에 항상 준비돼 있다.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지만 넓은 강에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불행히도 구조보다는 주검을 인양할 때가 더 많다. 수색 인원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투신한 사람이 가라앉았을 때는 물속 수색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강물이 아주 탁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30센티미터 앞도 안 보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모내기할 때 못줄을 치듯이 추로 로프를 박아 한 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강바닥을 더듬어가며 시신을 찾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수색에 베테랑인 유병종 경사는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컴컴한 물속에서 수색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부패되어 떠오른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한강경찰대의 일이다. 냄새도 역겹고 모습도 처참하지만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

한강경찰대의 임무는 웬만한 담력과 체력으로는 못할 일이다. 수중 수색을 위해 입는 잠수복 무게가 20킬로그램, 허리에 차는 납으로 된 띠 무게도 10킬로그램이다. 이 무게를 견디며 물속에서 수색을 하자면 체력 소모가 매우 크다. 젊은 대원이 많기는 해도 평소 체력단련은 필수적이다.

한강경찰대 본부가 함께 있는 망원센터의 대원들은 운동

한강경찰대는 하루 평균 4,5번 출동해 한 건 이상 인명을 구조하거나 시신을 인양한다.

을 겸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인천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 팀장은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오가며 한강 순찰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강물에 비닐봉지가 떠다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기도 하고, 술 마시고 강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한강 다리만 스쳐지나가도 순간적으로 다리 이름을 대곤 하기 때문에 한강경찰대 대원들은 '직업병'아니냐는 소리도 곧잘 듣는다. 김영달 대장은 그만큼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고 시민의 휴식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강경찰대에게는 일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경찰의 임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차갑고 깜깜한 물속에 뛰어드

한강경찰대는 하루 24시간 시민과 한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23명의 대원이 근무하며, 행주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 지키고 있다.

는 우리 대원들은 정말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죽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요. 살아야 뭐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유 경사는 한 번도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구조된 사람들이 다시는 목숨을 버리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잘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는 게 힘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한강경찰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 됩니다." G

글 · 이혜련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태권도공원, 반딧불 축제, 친환경 농특산물…

태권도의 메카로 거듭나는 전북 무주

전세계 태권도인의 요람으로 거듭날 무주태권도공원이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태권도의 날인 9월 4일 착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국책사업인 동시에 전북도가 1시군 1프로젝트로 육성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무주군의 가장 큰 성장동력인 셈이다.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세계 속의 무주로 우뚝 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을 기반으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태권도 체험전시관을 비롯해 경기장과 세계태권도마을, 추모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태권도의 세계화를 주도할 방침이다. 태권도 관련 세미나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체계화, 전문화된 교육을 선보임으로써 태권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의 태권도교육 활성화와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성인 태권도의 저변 확대는 물론 태권도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태권도 실업팀과 시범단을 육성하는 한편, 지도자를 확보하고 국내외 태권도대회를 무주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태권도공원 발판 세계적 휴양지로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김윤철 과장은 "세계태권도한마당2006 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와 2007년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 유치 등 태권도공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공원이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무주군의 미래라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무주리조트 등은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1997년부터 무주군은 청정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

동아DB

올해로 13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독창성을 지닌 대표적 환경축제로 손꼽힌다.

무주군은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태권도공원을 전방위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오고 있다(오른쪽).

를 소재로 '무주반딧불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는 독창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축제로 손꼽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자연학습장인 반디랜드에는 곤충박물관과 자연학교, 식물원과 천문대 등이 갖춰져 있어 관찰과 체험을 동시에 해볼 수 있다. 곤충박물관에는 반딧불이를 비롯, 1만3천5백여 마리의 희귀곤충 표본과 2백여 종의 열대식물, 그리고 수천마리의 나비를 살펴볼 수 있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김호진 위원장은 "무주 반딧불축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환경, 문화, 관광축제로 소비지향적인 일반 축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민을 통합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반딧불축제 외에도 무주군에서는 매년 8월 강변축제, 9월 산머루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친환경 '반딧불 농특산물' 신드롬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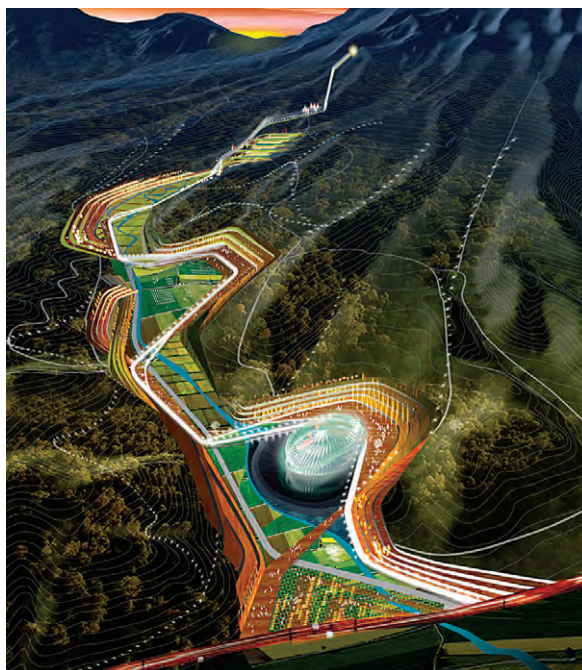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무주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정 먹을거리다. 얼마 전 무주군에서는 멸종위기동물로 알려진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에 이어 긴꼬리투구새우의 등장으로 무주는 청정 자연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깨끗한 자연환경은 무주군의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깨끗한 물과 흙, 햇빛과 바람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무주식 친환경 농법이 '반딧불 농특산물' 신드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1도 정도로 한여름에도 평균 20도 안팎인 무주군은 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랭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병충해가 적고 일조량이 많다. 해발 1백80~8백 미터의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사과, 포도, 머루, 복숭아, 옥수수 등은 무주군이 자신 있게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대표적인 농특산물이다.

당도와 품질, 영양 면에서 으뜸인 '반딧불 사과'는 영양과 맛이 뛰어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한다. 분홍빛 복숭아 역시 육질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해 고정 고객층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천마는 '하늘이 내린 신비의 작물'로 여겨질 정도다. 천마는 뿌리와 잎이 없고 덩이줄기만 있어 일반 마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천마는 혈액순환에 특히 좋아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무주에서 재배된 머루 100퍼센트 원액으로 제조된 고품격 발효와인인 '반딧불 머루와인'은 깊은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전국 와인 마니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G

글 · 구자홍 기자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을 기반으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태권도공원 조감도.

Interview

홍낙표 무주군수

"올해는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실천의 원년"

"군민이 곧 지역발전의 주체입니다. 군민들이 진정 행복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경영 행정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브랜드화로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홍 군수는 친환경농업과 전문화된 마케팅이 '잘사는 무주'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육성에 힘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케팅과 브랜드, 가공 및 유통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e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반딧불유통회사 설립, 체험관광형 프로그램 개발 등 '잘사는 농촌, 돈 버는 농가, 돈 되는 농업경영'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올해를 무주 비전2020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실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홍 군수는 "무주가 번영과 희망, 축복의 땅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타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착공식을 갖고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인 태권도공원은 홍 군수가 강조하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인 셈이다.

임실 장산~ 순창 장구목 섬진강 물길을 따라서

매화꽃 향기 취해 굽이굽이 섬진 5백리

5백리 섬진강의 물길 따라 흐르는 봄빛은 찬란하다. 중부지방의 산하가 겨울의 묵은 때를 떨어내기도 전인 3월 초부터 이미 섬진강은 나른한 봄꿈에 젖어든다. 매화가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고, 낭창낭창 휘어진 버드나무에는 연둣빛 신록이 가득하다. 그래서 섬진강 물길 따라가는 길은 꿈길처럼 황홀하다. 특히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산마을에서 순창군 동계면 강경마을 초입까지 약 30리 길은 섬진강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미 넘치는 강변길로 손꼽힌다.

'진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장산마을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은 젊은 시절에 무작정 상경해 방황했던 한 달쯤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한다. 40년 가까운 교직생활도 모교와 고향 주변의 여러 초등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평교사로 마감했다. 지난해 정년퇴임한 이후로도 시인은 어머니가 사시는 고향집의 작업실과 전주 집을 오가며 여전히 섬진강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기암괴석이 즐비한 장구목 밑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여행자들.
임실 구담마을 전망대에서 바라본 순창 회룡마을과 섬진강.(아래)

시인의 고향에서 시인의 마음으로

시인을 만나지 못해도, 시인의 고향 풍경은 언제나 푸근해 보인다. 마을 앞의 강 건너에 길게 뻗은 산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싼 덕분이다. '장산'(長山·진메)이라는 지명도 거기서 비롯됐다. 장산마을에서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은 또 있다. 시내처럼 폭이 좁은 강에는 튼실한 징검다리가 놓여 있고, 길가의 느티나무는 휴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편안한 쉼터와 그늘을 마련해두고 있다.

제법 따가워진 햇살 아래 장산마을을 뒤로하고 천담마을로 향했다. 장산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시멘트도로가 끝나고 잘 닦인 흙길이 뻗어 있다. 길가에는 김용택 시인의 '천담마을 가는 길'이라는 시와 길의 내력이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산굽이를 돌아가는 강물을 따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오래 걸으니, 세상으로 가는 길이 생겼더라. 그 길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 와 다시 봄이 오는 동안 해와 달이 수도 없이 지나갔으니, 길이 아름다워졌더라. 그 길에 다시 꽃과 나무를 심고 그 길을 '시인의 길'이라 이름 짓고 시 한 편을 여기 적어 두니, 사람들아! 이 나무와 꽃과 산과 강물과 하늘을 보며 그것들과 한 몸이 되어 이 길을 천천히 걸으라. 시인이 되어 보라!

'시인이 되어 보라'는 권유가 아니더라도, 이 강변길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정취는 아무리 가슴이 메마른 사람조차도 시인으로 만든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시인의 마음처럼 느긋해진다.

숨죽여 흐르는 강물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위에서는 한 쌍의 원앙이 한가롭게 헤엄치며 봄빛을 희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앙은 종(種)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

1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고향인 장산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쉼터.
2 한때 통째로 도단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되돌아온 장구목의 요강바위.
3 어느 초여름날에 장구목에서 낚시를 즐기는 부자.

327호로 지정된 희귀조류여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섬진강 길을 걷는 동안에는 세 번이나 원앙 부부를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이곳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안정되고 깨끗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천담마을에서 구담마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은 왕복 2차로의 아스팔트도로다. 자동차로는 한결 편안한 길이지만, 두 발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고역스럽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길의 중간쯤부터는 삭막한 아스팔트도로에서 벗어나 강물과 어깨를 맞댄 채 이어지는 흙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길에서는 봄이면 매화가 눈처럼 흩날리고, 가을엔 은빛 억새꽃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사실 맑고 푸른 섬진강 물길을 길동무 삼아 걷노라면, 매화나 억새꽃이 피지 않는 시절에도 나그네의 발걸음과 마음은 날아갈 듯 가뿐하다.

이 길에서는 봄이면 매화가 눈처럼 흩날리고, 가을엔 은빛 억새꽃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사실 맑고 푸른 섬진강 물길을 길동무 삼아 걷노라면, 매화나 억새꽃이 피지 않는 시절에도 나그네의 발걸음과 마음은 날아갈 듯 가뿐하다.

길의 끝에서 만나는 구담마을은 강가의 산중턱에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조망이 활달하다.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이자 몇 그루의 느티나무 고목이 서 있는 구담마을 전망대에 올라서면,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의 물길과 물길 양쪽에 우람하게 솟은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때마침 강변의 산비탈 곳곳에 만개한 홍매화와 백매화가 선경(仙境)을 연출하고 있었다. 동행한 여행작가 문일식(39) 씨는 "무릉도원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었을 것 같네요. 감히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요강바위 지나면 찻길 끊겨 구미교서 여정 마무리

임실군의 마지막 마을인 구담마을과 순창군의 첫 마을인 회룡마을 사이의 섬진강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아무리 큰물이 져도 쓸려가지 않을 만큼 크고 넓은 바위들로 만들어졌다. 걸터앉아서 시원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싶을 만큼 커다란 너럭바위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 잡았다.

내룡마을에는 강바람이 불어올 적마다 하얀 꽃비를 뿌려대는 매화밭이 있다. 그곳을 지나면 금세 장구목이다. 장구목의 강변에는 진짜 요강처럼 옴팍한 요강바위를 비롯해 천태만상의 바위들이 즐비하다. 하나같이 일부러 다듬은 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하지만, 실은 수천 수만 년의 세월 동안 강물이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빚어낸 작품들이다. 특히 높이 2미터, 폭 3미터에 무게가 무려 15톤에 달한다는 요강바위는 어른이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로 깊은 웅덩이가 패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바위는 한때 수억원을 호가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도난당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제자리에 돌아온 뒤로는 다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구목 아래에도 징검다리가 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근래 개설된 강변길로 접어든다. 강변과 산비탈의 숲을 깎아

3

만든 탓에 자연스런 멋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가는 차도 없고, 사람들의 발길조차 뜸해서 호젓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하류 쪽으로 1.5킬로미터쯤 내려가면 찻길이 뚝 끊긴다. 자동차는 여기서 되돌려야 한다. 그러나 걷는 길은 끊기지 않는다. 찻길 아래의 좁은 길을 조금 걸어가다 복분자밭을 지나면, 금세 콘크리트포장도로로 접어든다.

길은 섬진강의 물길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구미교에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복분자밭에서 약 2킬로미터쯤 떨어진 구미교 앞의 강경마을 버스정류장에는 군내버스가 하루 두 번씩 정차한다. 이렇게 사람의 여정은 끝나지만, 바다로 향하는 강물의 여정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물길을 따라 흘러온 추억도 강물의 흐름만큼이나 길고도 오랜 여운으로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 여행작가

여행 정보

숙박 장구목의 산수풍경(063-653-8948)과 장구목가든(063-653-3917), 천담마을의 마을회관(이용 문의 박주철 노인회장 · 063-644-5450)에서 민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본 뒤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산마을 입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인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에는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숙박시설을 갖춘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063-653-4779)이 있다.

맛집 장구목에 위치한 장구목가든은 토종닭 백숙을 잘하기로 소문난 집이다. 하지만 비수기에는 영업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장구목의 장구목토종가든(063-653-7196)에서도 매운탕, 다슬기수제비 등의 식사가 가능하지만, 영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는 길 **승용차** 호남고속도로 전주IC(716번 지방도)→이서교차로(1번 국도)→쑥고개교차로(직진 · 21번 국도)→원당교차로(27번 국도)→운암교→강진사거리(우회전)→회문삼거리(좌회전)→신촌마을 입구(좌회전)→장산마을

여객선 임실 시외버스터미널(063-642-2114)에서 강진, 덕치를 경유해 장산마을까지 들어가는 군내버스가 하루 2회(09:00, 19:00) 출발한다. 임실 읍내에서 장산마을까지는 약 40분 소요. 장산마을 초입의 신촌마을 입구를 지나는 순창행 완행버스는 대략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신촌마을 입구에서 장산마을까지의 거리는 1.5킬로미터, 순창 시외버스터미널(063-653-2186)에서는 강경마을 버스정류장을 거쳐 구미리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2회(10:10, 13:50) 출발. 동계터미널(063-652-4063)에서는 구미리행 버스가 하루 6회 있고, 동계에서는 전주행 직행버스가 수시로 출발한다.

영어 공교육 강화 전문인력 5천명 채용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도전하세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이 선발돼 올해 2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배치된다. 초등 또는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지만 해당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췄다면 응시할 수 있다.

동아DB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대거 선발로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계획을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으로 늘어난 추가 수업을 담당함과 동시에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 개발 등을 맡는 영어 전문인력을 말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2천명이 선발돼 9월부터 방과후학교 강사활동 등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정규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를 위해서는 3천명을 뽑아 오는 9월부터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을 맡길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급여는 연간 2천6백만원 수준으로 기존 시간강사 등에 비해 대폭 인상됐다. 1주당 약 20시간의 수업을 맡으며, 임용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근무평가 등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단,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교원 임용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초등 2급정교사 자격증 이상 또는 중등 영어 2급정교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대학에서 영어 또는 교육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응시 자격은 시도교육청별 선발 계획 공고 때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5월 말~6월 초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원서 접수는 6월 중 시작된다. 원서는 근무를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내야 하는데, 2개 지역 이상 복수 지원하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6, 7월 2개월간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 및 수업실연(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포함) 등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다.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은 영어로 진행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7월,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어효진 사무관은 "영어 분야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학교 영어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영어교육 분야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영래 객원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 생활안정 지원

연 1백20만원까지… 근로장려세제 첫 실시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둔 40대 가장 홍길동 씨는 월급이 95만원이며, 보증금 6천만원인 전셋집에 산다. 홍 씨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수혜자가 되어 최고액인 1백2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3일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설했다.

이 홈페이지는 근로소득 자료, 주택토지건축물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 자료를 갖춰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때 국세청 보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했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백20만원까지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후 3개월 내(8월쯤)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 후 30일 내(9월쯤)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총소득 합계 등 4가지 요건 충족되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천7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한 명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이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는 근로자와 외국인은 제외된다.

또 18세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2등급 이상 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일부 3등급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인 주택이 2채 있으면 전 재산의 합이 1억원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이 개설한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소득이 8백만원 미만이면 총급여액×15퍼센트 △8백만원 이상~1천2백만원 미만이면 1백20만원 정액 △1천2백만원 이상~1천7백만원 미만이면 (1천7백만원–총급여액)×24퍼센트로, 연소득이 8백만원 이상은 유지되고 1천2백만원은 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사업자(고용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을 통한 근로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액이 다른 경우 사실 여부를 심사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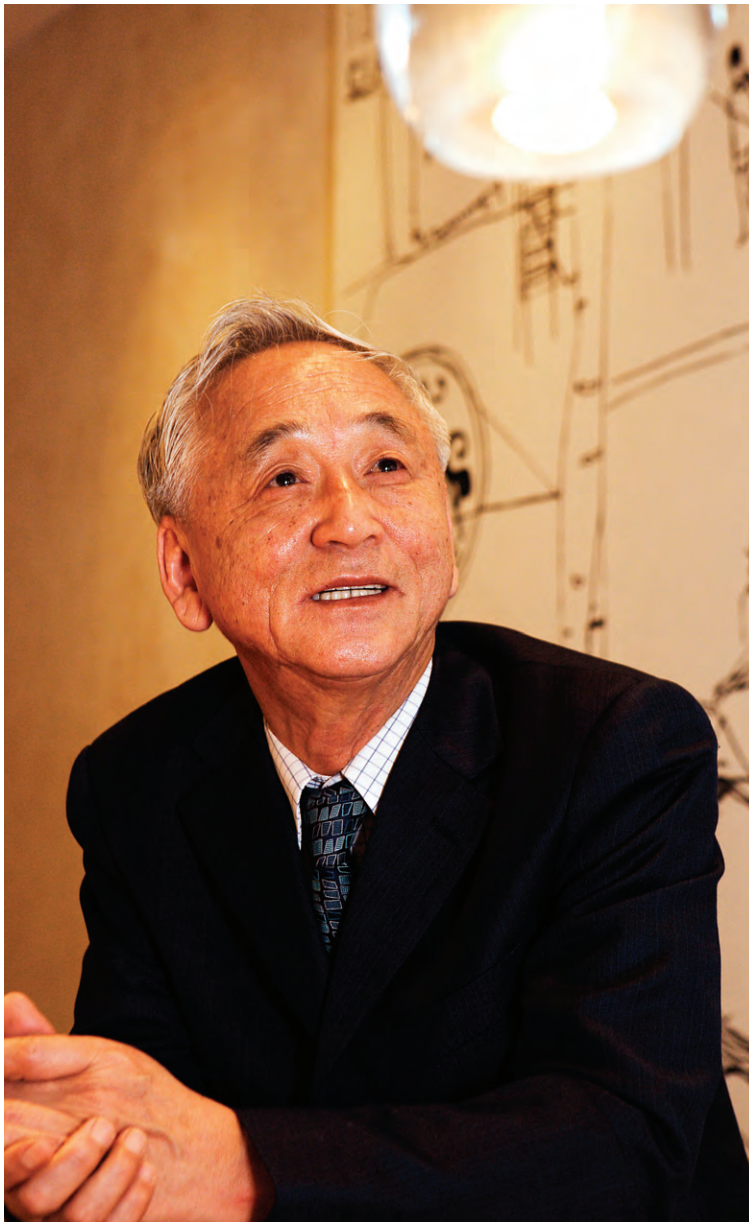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는 급여지급대장 사본이나 소득자원천징수부 사본을 급여 수령 때 또는 퇴사 때 미리 발급받아놓으면 이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번)와 국세청 종합상담전화(1588-0060), 근로세제 홈페이지 상담전화(1544-0090) 등을 이용하면 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막장 드라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요즘, 한 그릇 정화수처럼 청정한 방송이 있어 화제다. 사회 저명인사부터 필부까지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나누는 KTV의 '휴먼토크-내 마음의 고백'.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야만 다시 화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MC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14년 넘게 시(詩) 잡지를 운영하면서도 일부러 아들의 시는 싣지 않았어요. 괜히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만 아들을 보내고 난 지금은 그 일이 가장 후회돼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이야…."(황금찬 시인)

매주 수요일 저녁 KTV 스튜디오에서는 때아닌 '고백 성사'가 벌어진다. 사람들이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하나둘 털어놓는 카메라가 곧 고해대다. 이런 '고백'의 부흥회를 주도하는 주인공은 박동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자 문학평론가, 수필가인 그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휴먼토크-내 마음의 고백' 진행자다. 그런데 왜 하필 '고백'일까.

"고백이라는 양식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껴안자는 거지요. 모든 것이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슴 아팠던 일, 너무나 고마웠던 일, 그리고 낯부끄러웠던 일까지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홀가분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응어리를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왼쪽)가 진행하는 '휴먼토크-내 마음의 고백'은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꿈꾸는 '착한 방송'이다.

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자신의 30대 초반 교수 시절을 돌아본다. 추운 겨울날, 강의실에서 졸업시험 감독을 하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커닝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런데 여전히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는 학생의 호주머니를 확인하려다 깨달았다. 홑겹 옷만 입은 학생은 너무 추워 곱은 손으로 연필을 쥘 수 없어 웅송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 교수는 시험이 끝난 뒤 그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사 먹였다.

"그때 만약 내가 그 학생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한이 되었겠어요?" 라고 말하는 박 교수는 고백이야말로 소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가 말로는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논리로만 합의를 하려 할 뿐,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월드컵 응원이 그랬듯 정서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각박한 사회를 껴안는 고백의 힘

박 교수의 진행은 느린 듯하면서도 묵직하게 정곡을 찌른다.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혹은 선배처럼 초대석 손님들과 진솔하게 대화한다. 방송이 처음은 아니라지만 언뜻 봐도 프로급 진행이다.

"작가가 원고를 주지만, 내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원고는 읽을 수 없는 법이지요. 저는 원고를 받으면 내 이야기를 어디에 넣을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서 제 식대로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녹화는 하루 반나절이면 되지만, 실제로는 사흘을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황금찬 시인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민 탤런트 최불암 씨, '새 박사' 윤무부 교수 등이 그동안 방송에 출연했고 4월 17일에는 '우정의 무대'를 진행했던 영원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출연해 가족 사랑을 고백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앞으로는 저명인사보다도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방송에 등장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고 후련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휴먼토크-내 마음의 고백'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부터 50분간 방송된다. G

글 · 정지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볼만한 프로그램

KTV 북카페 | 매주 수요일 17:30~ 18:20

책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부터 행간에 담긴 작가의 생각까지 담아내는 프로그램. 4월 15일에는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의 저자 박석재 씨와 김희원 한국일보 과학담당기자, 배명훈 소설가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한 지 4백 년이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박사는 우리가 천문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짚어낸다. 유정아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 매주 목요일 17:30~18:20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인들의 열정적인 삶과 문화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들어보는 '토크멘터리' 프로그램. 김성경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4월 16일에는 '노래하는 발레, 유니버설재단 문훈숙 이사장' 편이 방송된다. 토슈즈를 신은 채 세계무대를 누비며 한국을 빛냈던 프리마돈나가 이젠 무대에서 내려와 후진을 키우며 '국민발레 프로젝트' 등 행정 실무에 분투하고 있다. 영원한 '지젤'이고 싶었다는 문훈숙 이사장의 열정적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KTV시네마 | 매주 금요일 22:00~24:00

주옥같은 한국영화를 오늘에 되살려 보는 KTV 시네마. 4월 17일에는 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상록수'를 방영한다. 1935년 <동아일보> 현상 공모에 당선된 심훈의 장편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피폐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 뛰어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최은희, 신영균이 신여성 채영신과 농민운동가 박동혁으로 주연을 맡아 그해 대종상 남녀 주연상을 휩쓸었다. 제56회 칸 국제영화제 회고전에도 초청됐던 의미 있는 작품이다.

따스한 봄날, 온 가족 나들이길

전통과 공연의 만남, 단오제 보러 갈까

천년의 어울림, 강릉 단오굿

일시 4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A석 1만원, B석 8천원 | **문의** 02-580-3300, www.ncktpa.go.kr

국립국악원이 한국문화 원형 찾기 시리즈의 하나로 2004년 황해도 꽃맞이굿, 2008년 제주 칠머리당영등굿에 이어 공연하는 '천년의 어울림, 강릉 단오굿'은 영동지역의 안녕과 생업의 번영을 기원하는 굿이다. 이번 공연은 풍농,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와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등노래굿, 춤과 동작 위주의 관오가면극 등 모두 여섯 마당으로 꾸며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 단오굿 예능보유자인 빈순애와 전수조교 김명관 등 강릉단오제보존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최종민 교수가 해설을 맡았다. 강릉 단오굿의 독특한 음악적 특색을 지닌 '청보장단'을 연구한 최 교수의 해설은 민요, 풍물놀이, 산조 등 우리 민속음악의 바탕인 굿의 매력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다. 최 교수는 "강릉 단오굿은 한국 축제문화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독창적인 무당굿 축제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세습무당이 의례를 진행한다. 세습무당들은 어려서부터 춤과 노래, 무악을 익혀 판소리, 농악, 민속춤 등 전통연희예술을 기반으로 세련된 공연예술을 만들며 전통을 잇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 서울연극제 공식 초청작 '봄날'

일시 4월 22일(수)~28일(화)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02-744-7304, artstheater.arko.or.kr

봄과 불이라는 자연의 원초적 상징을 바탕으로 한 연극 '봄날'은 1984년 극단 '성좌'에 의해 초연됐다. 현실적 문제를 설화적 세계로 이끌어 내 모성을 통한 화해 모색이라는 주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강백 작가의 희곡세계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초연 당시 출연한 배우 오현경이 25년 전 무대에서와 같은 아버지 역으로 출연한다. TV와 무대를 오가며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는 이대연이 큰 아들로, 극단 '백수광부'의 단원들이 자식들로 분해 '봄날'의 봄기운을 한층 북돋운다.

인도 현대미술전-세 번째 눈을 떠라!

일시 4월 17일(금)~6월 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1·2전시실
관람료 5천원
문의 02-2188-6114, www.moca.go.kr

국립현대미술관은 2009년도 국제기획전 '인도 현대미술-세 번째 눈을 떠라' 전을 통해 또 하나의 인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동안 예술의 중심이라 여겨졌던 서구 미술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이 시대, 아시아 현대미술, 특히 인도 현대미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가 27명의 작품 1백10여 점은 화려한 과거의 문명국으로만 알려진 인도의 모습에 현대의 인도를 덧입힌다. G 글 · 김지영 기자